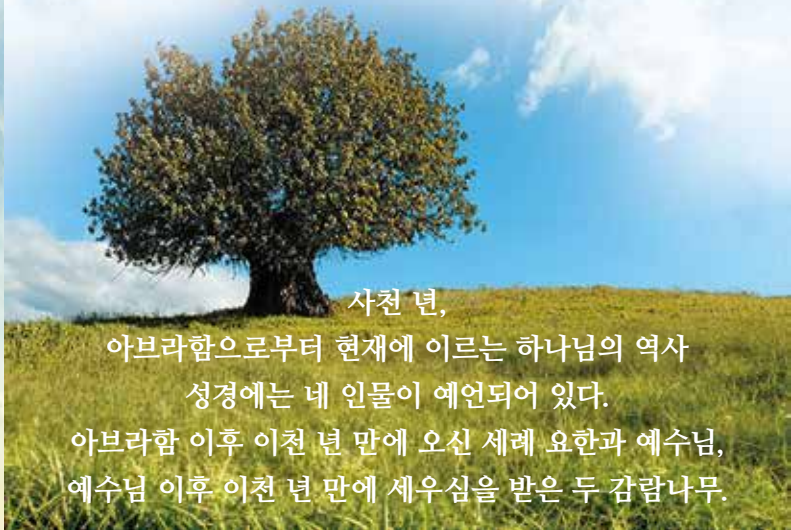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4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1월 2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280-2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4



저자 (1977년 당시)



알곡성전 3별관. 놀이동산에서 본 3별관의 설경. 아래에서 보면 7층이고 옆에서 보면 4층 건물이다. 왼쪽 위로 알곡성전이 있다.



3별관 설경. 왼쪽으로 알곡성전 뒷모습이 보인다.

Prologue

“책머리에”

이 땅에 여호와와의 큰 역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 — 그 동안 주의 종은 다섯 권의 저서를 내 놓았다. 설교집 네 권과 계시록 강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제5설교집의 원고도 준비되고 있다. 외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그렇게 다변(多辯)해야 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모르는 소리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미 나온 설교집이 잘 말해 주리라고 본다. 주의 종은 양떼들이 아직 감당치 못할 까봐 깊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터뜨리는데도,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아무튼 설교집 발행이 횡수를 거듭할수록 감명이 더욱 깊고 새롭다. 이것은 ‘에덴의 메아리’를 1집에서 4집까지 정독한 사람이면, 누구나 동감일 것이다. 우리는 무궁무진하고 오묘한 말씀의 향연(饗

宴)에 초대된 것을 우선 주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에텐의 메아리’가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좀 더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설교집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하다.

첫째, 주의 종의 설교는 즉흥적 내지 기계적이다. 즉 그의 입술은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의 마이크(기계)가 되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쏟아놓는다. 따라서 설교 준비는 몇 마디 기도로 대신하고 원고는 물론, 메모 같은 것도 일체 장만하지 않는다. 이 설교집은 내가 받아 쓴 것이다. 그러므로 문책(文責)은 나에게 있다.

둘째, 성경의 감춰진 비밀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전15:51)라는 말씀대로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덮여둔 여러 가지 오랜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간다. 또 그는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 않게 보아 넘기는 말씀이 지닌 중요한 의미와 그 배후까지도 세밀히 가르쳐 준다.

셋째, 기독교의 핵심과 대맥(大脈)을 밝혀 준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과 역사의 본질을 해명하여 양떼들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를 말씀으로 다듬는다. 그만큼 ‘운동력’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이영수의 말이 곧 이영수의 말이 아닌 소치이다.

넷째, 그의 설교는 계시적(啓示的)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롬16:25-26 참조)이라는 바울의 경우처럼, 그는 항상 주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양떼들에게 전한다. 그의 설교가 지닌

깊이는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다섯째, 그는 하늘의 새 소식을 전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2천 년 이전의 신학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해 왔으며,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한 데가 있다. 시대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설교집의 저자 이영수는 이것을 메우는 20세기의 주의 종이다.

이 설교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더러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해명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의 메아리’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미 나온 설교집들은 깊은 영의 세계에 이르는 몇몇 디딤돌이라고나 할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속편(續篇)들과 함께 유기적인 집대성(集大成)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이영수 신학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다시 가르치고, 우리는 새로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동안에 여호와와 뜻이 무엇이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와 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여태까지 미처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것을 알게 되었다. 안다고 반드시 잘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르고는 잘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진리는 고독하다. 세상이 그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시하여, 모세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도 그것을 또 한 번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

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런 달갑지 않은 벽은 하루 속히 헐어 버리고, 대화의 폭을 좀 더 넓혀야겠다. 이 설교집은 여기에도 한 몫을 담당해 줄 것이다.

끝으로 이 설교집을 읽는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빈다.

1977년 11월 1일 최 현

Prologue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눅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눅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눅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최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10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2

Part 01. 흰 돌의 증언

- 01 사랑에 대하여 24
- 02 부활의 의미 29
- 03 적(敵)을 알라 37
- 04 주님 주변의 여인들 45
- 05 24장로에 대하여 53
- 06 여호와와 보좌가 있는 곳 58
- 07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62
- 08 우상 숭배에 대하여 67
- 09 하나님의 도와 이긴자의 도 73
- 10 천사에 대하여 83

Part 02.

진리 안에서

- 11 천지 창조 90
- 12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 105
- 13 감람나무에 대하여 129
- 14 믿음은 스스로 키워야 한다 152

Part 03.

은혜의 동산

- 15 천국에 대하여 162
- 16 선지자, 사도, 이긴자 168
- 17 재림에 대하여 173
- 18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180
- 19 우리의 재산은 믿음이다 187
- 20 오병이어 196
- 21 인간을 보지 말라 201
- 22 믿음과 행위 206
- 23 생명의 불로초(不老草) 212
- 24 순종과 축복 217
- 25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신다 222
- 26 믿음의 풋대 234

Part 04.

좁은문을 두드려라

- 27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말라! 240
- 28 양과 염소 246
- 29 주의 종은 고독하다 252
- 30 계시록의 두 여인 258
- 31 순교에 대하여 266
- 32 은혜의 다림줄을 잡아라 270
- 33 할례와 율법 276
- 34 지상의 주님과 천상의 주님 281
- 35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286
- 36 지구는 꿈틀거리고 있다 291
- 37 은혜를 받으라 295
- 38 '에덴호'의 새 출범에 즈음하여 304

Part 01.

흰 돌의 증언



1 사랑에 대하여 · 2. 부활의 의미 · 3 적(敵)을 알라 · 4. 주님 주변의 여인들 · 5. 24장로에 대하여 · 6. 여호와와 보좌가 있는 곳 · 7.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 8. 우상 숭배에 대하여 · 9. 하나님의 도와 이긴자의 도 · 10. 천사에 대하여

Chapter 01.

사랑에 대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성(異性)과 이성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육적 및 감각적인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은 옛날부터 문학의 중요한 테마(主題)가 되어 왔으며, 여러 모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지만, 요컨대 세상에 후손을 남기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보다 좀 더 단계가 높은 사랑으로서 정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을 떠나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사랑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른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끼리의 사랑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강령(大綱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무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다니 될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듯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또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실례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나 스테반의 순교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죽도록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일체이시므로 하나님이 곧 주님이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14:9)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서는 당신의 아내로 삼으십니다. 이 주의 아내가 곧 하늘의 군대이며, 주께서는 이 하늘 군대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계6:11) 이 수가 차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꺾어야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를 채우는 역사가 오늘날 바로 이 단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목숨을 바쳐서 너나없이 순교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주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웃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이웃이요, 또 하나는 믿는 이웃입니다. 에덴성회의 식구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여 많은 죄를 가리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관용(寬容)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하기가 쉽고, 따라서 너그럽게 보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

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금기(禁忌)가 많습니다. 즉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혈기를 내지 마라, 하고 온통 하지 말라는 것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하라는 주문도 여간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하여라, 전도에 힘을 기울여라 등등, 아무튼 여간 귀찮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았으니 망정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라’ 또는 ‘하지 마라’ 하는 가르침은 요컨대 ‘사랑’ 하나에 흡수되며, 따라서 사랑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여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히 덕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고전13:1,

4)

그런데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사랑을 불교의 자비(慈悲)나 유교의 인(仁)과 같이 하나의 기본적인 덕목(德目)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도덕 이상의 생명의 종교이고 보면, 사랑도 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마5:44)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

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던 자가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범죄만 놓고 상대방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원죄와 유전죄까지 곁들여서 인간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새까만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은, “네가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도 너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런 주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인간관(人間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오냐오냐하고 덮어주고 쓰다듬어 주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에는 서릿발 같은 매서운 면이 있습니다. 바울도 만일 형제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악한 짓을 하면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고전5:11) 우리는 그때 그때의 정상(情狀)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02.

부활의 의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리송한 데가 많으며, 또 영이 맑지 못한 우리로서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느 책들과 다른 특징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덴성회를 발족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의 기록은 주를 따르던 제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당시에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쓴 것이며, 성령을 받은 은혜의 단계가 각각 다르므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가 이상 중에 본 아래와 같은 장면은 좀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27:50-53)

이 말씀은 마태가 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휘장이 찢기는 순간, 구약시대의 제사는 폐지되며,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16:13)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의 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당시에 얼마나 수수께끼의 인물로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 아느냐?” (마16:15) 시몬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를 베드로(반석)라고 부르시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16:19)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최대의 특권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께서는 오랫동안 숨겨온 심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잡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 마옵소서.”(마16:22) 하고 만류했습니다. 주님은 물론 베드로의 이런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사단아 물러가라!”(마16:23) 라고 크게 책망하시고 사사로운 정(情)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진 스승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과 영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미가 괄괄한 베드로는 몰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해치려는 자가 나타나면 처치하려는 심산에서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육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는 제사장의 하수인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마26:52) 하고 주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께 제공한 무덤에 묻혀 있던 사흘 동안에, 하늘에서는 주님의 시신을 천사를 시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본래 영체로 우주의 창업에 하나님과 동참하신(요1:1) 주님에게 죽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창조주 되시는 주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지구에서 잠시 입었던

육신을 벗어버렸을 뿐입니다.

죽음이란 육신에서 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단 육신을 떠난 혼이 다시 육신에 깃들면 장본인은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예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요11:43)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런 재생(再生)이 아니라, 육신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이 홀연히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고전15:51)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마28:1-3) 이 천사는 일찍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잉태를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줄곧 이 천사장을 시켜 보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장이 주님의 육적인 장막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무덤 속에 세마포만 남고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영의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신학자나 교역자들 중에도 기독교의 진수인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앎이라.” (롬6:8-9)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모시고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혼이 육(肉)을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언제까지나 살아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혼이 육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움직여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면 그 혼이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다가 영원한 암흑 속에 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으로, 그릇은 깨어져도 혼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성경에 “육은 무익하다.” (요6:63)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수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렇게 쉽게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과 측근들의 움직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날마다 침식을 같이하다시피 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듣고 놀라운 일거일동(一舉一動)을 목격했으나, 주를 메시아로 거의 믿지 않았다는 것이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수제자인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주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마 26:75) 이것은 제사장들 앞에서 무참히 당하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겁이 더러 닳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 때 혼자 있었으니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나 주를 따르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유대 나라의 해방자로서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평소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꺾꺾때도록 권능을 행하여 굴복시킬 줄 알고 있었는데, 웬걸 제사장들에게 붙들려가서는 뺨을 얻어맞고, 발길에 채여도 꼼짝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를 전혀 모르며 본 일도 없다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겠다고 일렀습니다.(마26:32) 갈릴리로 말하면 주께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증거를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제자들과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혜택만을 기대했던 베드로는 주께서 세상을 떠나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부활이고 뭐고 생각할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확인하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눈 감아 준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육을 벗어버리고 영체로 화하였으므로 인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려면 이와 같이 변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사로처럼 부활이 아니라 소생되었다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으나, 당신이 육을 입고 다시 사신 것을 제자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이들을 한데 모이게 하고 실제로 다시 사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당신을 이렇게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영체로 화하여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잠깐 영안(靈眼)을 뜨게 하여 당신을 보여 주었다가 곧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줄 알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의 뒤를 따라 무덤에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딘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찌면 이토록 미련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씩이나 나타나 보였는데도 전도할 생각은 않고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요21:3) 수제자가 이 모양이니 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

니다. 주께서 열한 제자가 한데 모여 있을 때 나타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은 것도 당연합니다.(막16:14)

Chapter 03.

적(敵)을 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7) 성경 66권을 통하여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낱말의 하나가 마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요,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귀의 위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 농간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며, 마귀는 영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있을 법한 일이지는 하지만, 우리는 이 대적(大敵)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약 4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결해도 마귀 새끼 한 마리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는 마귀는 줄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찢절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의 위계(位階) — 하나님, 주님, 이긴자, 네 생물, 24장로, 주의 아내 — 가 있는 것처럼, 마귀의 편에도 계급 — 용(龍), 짐승, 음녀, 술객 — 이 있으며, 그 위력은 양자가 거의 비등하며, 마귀는 창조만 못할 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모방한다고 하여도 과연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동안(한 때, 두 때, 반 때)이나마 의(義)의 세력이 마귀에게 꺾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계11:7)

하나님이 용과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것도 설사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직접 마귀를 때려 부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부리는 천사나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역사하시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도 주님은 나서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힘이 되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과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주의 피가 건재하니깐요. 즉 마귀는 주의 피 권세로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또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피 값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뜻대로 척척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하여 우리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예배를 드릴 적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그럼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피)가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 싸워야 하며, 하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적대세력(마귀)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를 세상에서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고약한 마음씨, 즉 악으로 기울어지려는 마음의 충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마귀는 엄연히 살아서 활동하는 악의 원흉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체로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적수(敵手)가 되어 왔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론(마4:8-9) 공중 권세도 잡고(엡2:2) 거짓 이적을 행하며(계16:14, 살후2:9) 성경을 비뚤로 해석합니다.

오늘날 거짓 것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성경 구절을 부분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여기에 약간의 이적까지 곁들여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은 모두가 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새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으레 백안시(白眼視)하고 코웃음부터 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역사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경을 뚫고 맨주먹으로 이만큼이라도 자라게 된 것은 실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망정이지, 인간 이영수가 이 단을 지킨다면 지금쯤 다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빈약하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를 도깨비로 몰면서

남들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트집이요, 모략입니다. 참 딱한 친구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긴 그들은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배운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저들의 위치에 있다면 어떠했을까?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언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럴 공산이 큼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슥14:8)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환히 알고 있는 것은 이처럼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수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야 물론 공부하면 공부 안 한 것보다야 나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을 천 번쯤 읽으면 구절들을 입으로 줄줄 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을 모르는 구절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의 장절에 밝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알맹이, 즉 그 큰 줄기(大脈)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줄기를 알면 가지는 저절로 알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은 자기 머리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밝은 것은 요컨대 성경 기자인 선지자나 사도들과 영적으로 동창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에 가려 놓은 대목이 많은 것은 마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경에 가려진 이런 여호와와의 비밀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도 영을 분별하는 척도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감춰진 여호와와의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성경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3:9)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증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하여(엡3:3)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행19:6) 그러나 사도시대의 안수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천 년 전에 죽은 바울을 여기 불러다가 안수를 받을 겁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럼 말씀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객지의 움막이나 옥중에서 각 처의 교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는 그대로 기독교의 신학이 되어 우리에게 훌륭한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문자 그대로의 마지막 때에는 바울의 말씀만으로는 미흡한 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신학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갖출 수 있으며, 하늘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소상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많이 가려져 있으며, 아무리 앞뒤를 맞춰가며 연구해도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일일이 해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감추었던 여호와와의 비밀을 터뜨리는 주의 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주의 종이 곧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눅10:14) 일찍이 주님은 당신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신 후로, 이 이긴자가 나타나 당신이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이긴자가 나타나 불과 이슬과 생수의 강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때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성령이 과거보다 몇 배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면 성령이지, 강한 성령이 따로 있고 약한 성령이 따로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마귀가 상대적으로 강한 무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군비 경쟁을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사도 시대의 불의 성령쯤은 오늘날 마귀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병도 고치고 약간의 이적도 행하고 있으나 별로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며, 초대교회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남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성령은 그 위력에 있어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도 말씀이지만, 부어주는 성령의 강도에 있어서 앞선 어떤 역사와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대결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전에는 마귀를 되도록 피했으나, 지금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 도망치는 것과 직접 도전해 쳐부수는 것과 어느 쪽이 강하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미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보면 병은 낫지만 대신 그 마귀가 장본인에게서 나와 다른 성한 사람을 침범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목격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즉 이 단상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이 한 번 닿으면 마귀의 세력이 그냥 녹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위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길로 한 번 씻음을 받으면 다시는 좀처럼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차지한 이 최악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역사가 아직도 준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불원에 좀 더 분

명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금년은 도약의 해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줄을 놓치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뛰어 주어야겠습니다.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는 내게 맡기고 따라만 오십시오. 인간 앞에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남의 흥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으면 믿음의 형제로서 간곡히 권면하십시오. 그리하여 고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해야 합니다.

Chapter 04.

주님 주변의 여인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즉 주님에 대해서는 세상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성경에 여러 모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태어날 곳이며, 그 특이한 생활 조건과 성장 과정, 하늘의 도를 전하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후의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성경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은 예언된 그대로 와서 그대로 움직이다가 그대로 가신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님의 경우처럼 소상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인물로는 세례 요한과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주의 길 예비자이며, 감람나무는 재림주의 길 예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나 위풍이 있고, 또 주를 생전에 가까이 모신 제자들은 얼

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도 다른 사람 눈에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초라한 시골 목수에 불과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측근자라야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어부나 세리(稅吏)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초림주의 길 예비자로서 제 구실을 올바로 하지 못하여 주께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하늘의 사람이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분신으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마17:12)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며, 지체 높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으므로 구태여 번거롭게 이적과 기사를 해 보여 자기의 존재를 증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였으므로, 당시의 많은 세도가와 식자층이 그를 따랐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여 이들을 고스란히 주의 신봉자로 넘겨주었던들 주님은 일해 나가기가 한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여, 주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을 의심하는 바람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결국 세례 요한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의 지위가 크게 격하되었던 것입니다.(마11:11)

어쨌든 당시에 내로라하는 자들은 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주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그 측근들은 당시에 하류층에 속하

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 하긴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안목과 우리의 그것 사이에는 거리가 멀지만 —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가까이 모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같은 고장에 살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일생을 보낸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은 종이 한 장의 차이로 큰 행운에 접할 수도 있고, 불행에 허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가까이 대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 몇 사람의 여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가까이 대화를 나눈 여인은, 육적인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면, 서너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생 막달라 마리아와, 간음한 여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한결같이 미천하기 짝이 없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의 막달라 출신의 기생입니다. 그녀가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일곱 마귀를 내쫓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존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진 향유를 부은 것으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눅7:38)

그녀는 주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니라 들이부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몸으로 많은 사나이를 가까이하였으나,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육신을 일시적으로 향락하면 그만이었으므로,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녀를 크게 압도해 버렸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주님을 영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인격과정(情)에 끌려 따랐을 뿐입니다.(마26:32 참조) 주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마26:13)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기생을 위해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녀가 어떤 여자이며, 주의 사업에 얼마나 공이 컸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재정적인 후견인(後見人)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의 전도 활동에 많은 뒷바라지를 해 드렸습니다.(눅8:2) 그리하여 자연히 막달라 마리아의 발언권이 커지자 제자들은 이러한 그녀를 속으로 은근히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먼 길을 걸어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찾아간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요11:11)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

웁니다. 그녀는 주님을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습니다.(눅7:38) 당신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붓는 것을 묵인하는 주님을 옆에서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알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것을 보니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눅7:39) 여기서 이 여인이 기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떠보기 위해 선지자 —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 라는 명목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바탕이 이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초대에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지만, 유쾌할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심정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많은 빛을 탕감 받은 자가 더욱 고맙게 여긴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7:47) 이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기생의 죄는 사해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지옥 불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아마 마음속으로 주님과 기생의 거동을 몹시 썩스럽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께서는 사랑을 앞세워 여인

의 행위를 옹호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보는 눈과 인간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마16:6)는 말씀의 배경을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주께서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봅시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주님에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거짓말이요, 여인을 놓아준다면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곤경에 빠뜨릴 줄 알고, 속으로 히죽거리면서 주님의 거동을 예의 주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들의 이런 꿍꿍이속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의 물음에 일단 글씨로 표시하는 여유를 보이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의 허(虛)를 찌르는 창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여 여인 관계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였으므로(신24:1, 렘3:1) 수틀리면 이혼 증서 한 장으로 아내를 내쫓기가 일쑤였으며(마

5:31, 막10:4) 말로는 간음을 통박하면서도 세도깨나 있는 사람 치고 뒤가 구리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찢끔하여 슬금슬금 꿈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 이것이 그 여인에 대한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는’이라는 말씀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다시 범죄하면 그때에는 큰 화근이 된다는 경고가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봅시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한 뒤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왕하17:24)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자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할 뿐만 아니라, 물까지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이 때 주님과 여인 사이에 나눈 대화를 간추려 보면 “물 좀 줘요.”

“보아하니 유대 사람 같은데, 어찌 저와 같은 천한 계집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임자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면 생수를 얻어 갈 텐데.”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군.”

이때 제자들은 식량을 얻으러 동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들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매우 언짢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 주님에게 물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은 짧은 기간이나마 공인(公人)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처럼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Chapter 05.

24장로에 대하여



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계5:6)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용한 이 말씀은 이미 책이 되어 나온 계시록 강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상세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매우 호화찬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 있으면 시들하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참 지당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권태’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곧 싫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 평소에 몹시 부러워하고 아쉬움을 느끼던 것을 막상 손에 넣어도 처음 한동안만 흡족하게 여길 뿐, 얼마 안 가서 면역이 생겨 별것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것을 추구합니다. 가령 유행

같은 것이 자주 바뀌는 까닭도 이런 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그럴 듯한 질문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땅 위에서 인간 본위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므로 우리네 육의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이 지구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의 행동 원리나 생활 감정이 180도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천국은 소일거리가 없어 하품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런 심겁기 짝이 없는 곳이라면 왕이 되어도 반가울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많은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천국의 제일 웃어른은 하나님이고 그 아래 주님, 그 다음에 이긴자가 각각 보좌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계3:21) 그 아래 네 생물이 있고 그 아래에 24장로가 있으니(계5:8) 여기서 벌써 다섯 계층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계층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많은 왕의 반열입니다.(계21:4) 그러니까 왕의 위계만 해도 여섯 층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층들 가운데 24장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원주민

을 정복하고 맨 처음 착수한 일은 지파의 두령들에게 각각 땅(분깃)을 분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수14:2) 이 경우에 크게 참작되는 것은 충성도(忠誠度)입니다. 즉 어느 지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며, 기쁘게 했느냐에 따라 중앙의 넓은 분깃을 차지할 수도 있고, 변두리의 좁은 분깃 밖에 차례가 오지 않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과거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첫 언약(言約)은 다시 오는 하늘의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하나의 그림자로서 대안하고 있습니다.(골 2:17, 히10:1) 그리고 분깃을 나누는 가나안 땅의 고사(古事)는 앞으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14만 4천의 왕들이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가 속한 반열에 따라 분깃을 받게 되며, 그 대표자가 곧 24장로이고 주의 지시에 의해 분깃을 나눠주는 자가 다름 아닌 이긴자입니다.(계2:26)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두령에게 분깃을 나눠준 것이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이긴자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한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손수 이 분깃을 나눠주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두목을 다스렸듯이, 이긴자는 24장로를 치리하게 됩니다. 이긴자를 괜히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혀 두는 것이 아닙니다.(계3:21) 또 여호수아에게 자기 몫의 분깃이 필요 없었듯이, 이긴자에게도 자기 분깃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전체를 통틀어 거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긴자를 야전사령관으로 비유한다면 24장로는 사단장이라고나 할까요. 만일 이 경우에 24장로라는 왕의 두령급을 선정하여 분배하지 않고, 14만 4천의 왕에게 각각 분깃을 나눠주려면 번잡스러워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동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 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마17:3) 그들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여기 오게 되고, 저 사람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서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열두 지파에 속한 수는 무수하지만, 영적인 열두 지파에 속하는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계7:4) 이 신, 구약을 통틀어 열두 지파의 두령을 합쳐서 24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이긴자를 제외하고는 인간으로서 구속받은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속하며,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속4:14)이 택하게 됩니다.

네 생물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영, 곧 천사로, 그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의 얼굴을 사람과 사자(獅子)와 소와 독수리로 비유하고(겔1:10) 이 생물을 그룹이라고 부르며,(겔10:20)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계4:7)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위력을 표시하고, 독수리는 통찰력을, 인간은 지력(智力)을, 그리고 소는 인내력을 각각 표시합니다.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을 지칭한 것으로, 여기에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하여 위계가 높은 천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심판하는 천사(고전6:3)는 네 생물보다 직위가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는 그 상층 구조만 보더라도 매우 복잡하며, 그것은 지구상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판도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또한 그 구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Chapter 06.

여호와와의 보좌가 있는 곳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후12:1-2)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이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실을 밝힌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비로소 발설한 것입니다. 바울이 선불리 입 밖에 내 놓았다가는 괜히 오해나 살까 봐 14년 동안이나 덮어두었다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어 말발이 설 때 비로소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했으며, 한편 또 가로막는 세력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주장한 할례를 폐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

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으나,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상 중에 3층천에 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특별한 은혜로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여호와를 뵈고 말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다른 성령의 조화이므로, 사실 여간 큰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서도 특별한 대우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이 3층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 역시 이상 중에 바울처럼 실제로 가본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3층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곳은 얼마나 호화찬란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상 중이나마 여호와의 보좌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세는 강림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보지 못했으며, **(출33:20)**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빛나는 형상을 보는 순간 까무러쳤던 것입니다. **(행9:8)**

이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곳이 곧 3층천입니다. 그러니까 3층천은 바로 우리가 기도문에서 늘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이 곧 그곳입니다. 그럼 3층천, 즉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 푸른 하늘을 지나 또 하나의 하늘을 거쳐 그 다음 하늘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상 중에 하늘이

열려 네 생물을 보았는데, 이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었으며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겔1:26)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하늘은 푸른색을 띠고 있으나, 네 생물이 있는 하늘은 투명한 수정빛이며, 그 하늘 위에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겔1:28)고 말하고, 바라보니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겔1:28)고 여호와와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보좌가 놓여 있는 이 ‘3층천’에 대하여는 해석이 구구하며, 어떤 분은 1층천은 마음의 천국, 2층천은 천년 왕국, 3층천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실로 셋째 궁창에 계시며, 그 머나먼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아득한지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길이 없는데, 또 궁창 하나를 지나 셋째 궁창에서 오는 성령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닿는 것이겠습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빛이 아직도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속도는 이 빛의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만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닌 권능의 일부를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초스피드로 보내 주신 성령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은 실로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로, 여호와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며, 사도시대의 불과 같은 성령과 오늘날 마지막 때의 세 증거(불, 생수, 이슬)의 성령은 그 기능이 월등하고 소임이 판이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대적인 마귀의 전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Chapter 07.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今生)뿐이면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15:19)

에덴성회가 문을 연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어, 잊지 못할 회고담도 하나 둘 늘어가며, 우리의 교세(教勢)는 안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지고 밖으로 점점 멀리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곧 나이 하나를 더 먹게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단에 선 것이 서른 세 살 때였는데, 내일 모레면 서른 여섯,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 동안 나는 무척 늙었습니다. 3년 전에는 미남이라는 소리도 더러 들었는데, 저번에 거리에서 3년 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늙었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과연 눈언저리에 잔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육을 가졌으니 늙

어갈 수밖에. 그러니 난들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젊은 축에 속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죽음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몰래 탄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관념(사상)으로 이 죽음에 도전하고, 시인은 시를 방패로 하여 죽음에 항거하였으나, 결국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음 앞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인간은 죽음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흘려주신 피의 철장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요10:9)고 단정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실상(實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잡아야 하며,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고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내세를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분명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험벗고 굶주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으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빛을 드러낸 인격자요,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대 신학자였습니다. 곳곳에서 교

인들이 그를 천사나 그리스도처럼 영접한 것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를 얻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금방 천당에 가고, 믿지 않은 죄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심판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 이 대기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와 음부입니다. 오늘날 심령 과학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까지는 특수한 장치를 한 사진기로 촬영한다고 하나, 다음에 그 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주의 아내가 될 의인들이, 음부에는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 지성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며,[\(계6:10 참조\)](#) 믿는 자들 중에서 주의 피로 온전히 씻음을 받지 못했거나, 주를 모르고 살아온 불신자는 음부에 가서 심판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계20:12\)](#)

여러분 중에는, 주께서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 주님을 증거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반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의미이며 ‘오늘’은 오늘 중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오

늘 처형되어'라는 낱자에 악센트(역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낙원, 즉 천국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와 무저갱은 다릅니다. 음부는 인간이 죽어서 심판할 때까지 갇혀 기다리는 곳이고, 무저갱은 천사가 마귀를 잡아 가두는 곳입니다.(눅8:31, 계20:3-참조) 지금은 마귀의 세상이라 저들이 세도를 부리지만, 하늘의 군대가 다 편성되면 저들을 무저갱 속에 던져 잠그고 세상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계20:3) 그 후 천년이 지나서 그들이 잠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득세했다가 모조리 박멸당한 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천국과 지옥이 생기게 되며, 그때 비로소 의인과 죄인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정한 하나의 룰(규례)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 제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모두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아내가 되지 못한 신도나 숫제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을 음부에 가둬 두는 것은 이들의 영을 그대로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면 자기와 가까운 자에게 들어가 마음대로 조종하여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나 말을 하기도 하므로 그 영혼이 세상에 남아 있는 줄 알기 쉽지만, 이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 세상에서 그를 주관하던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 마귀가 와서 그 제사를 받습

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시106:28)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면 거의 다 일단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거의 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는 주의 피로 깨끗이 씻긴 사람은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는 주님의 말씀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힘써 천국을 빼앗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hapter 08.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신앙 가운데 발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차츰 나아지고 변해 가는구나!’하는 자의식(自意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 ‘첫 사랑’을 잃었는지 곰곰이 반성하여 이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씻어 새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게 되지 않고 만날 그 타령이라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징조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은혜줄에 매달려 안타까이 호소하는 극성이 없으면 주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믿는 이런 적당주의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믿을 바에는 적

극성을 띠어야 합니다. 남의 뒤통무니에서 슬슬 따라가도 된다면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주의 일에 몸을 사리거나 인색한 사람은 당장은 영리하게 처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엄연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 연조가 오랜 분들은 체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을 공경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고, 주님을 멀리해서 이득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왜 내게는 은혜가 오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두쇠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사50:2)라는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진리입니다. 구원은 주의 은혜로 되지만,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힘써 당기고 간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은 물론, 공중 권세도 잡고 있습니다.(엡2:2)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기 바늘구멍만한 곳에 햇살이 비치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지 못하고 어떻게 밖에서 침범하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마귀와 부딪치는 족족 여러분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정도라면 알 것 아닙니까? 게다가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이쿠, 하나님

의 아드님, 이리 오십시오!”하고 깽뚝이 공대하지 않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하고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지만 마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위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을 한 눈에 내려다 보면서, “이 찬란한 세상을 내가 넘겨받았으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테다.”(눅4:6-7) 하고 말하니, 이런 건방진 수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니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준 것은 마귀의 왕초, 용(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상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왕초인 용이 아니라 그 아래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대체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일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지만, 살기는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의 향수(그리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몸은 공산 치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휴전선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명실 공히 대

한민국 백성으로 만들려면 우선 이 장벽을 헐고 대한민국의 품안에 안기게 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도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휴전선을 뚫고 스룹바벨처럼 은혜의 다림줄을 잡은 자가 바로 ‘이긴자’입니다. 이 다림줄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내리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게 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선민으로 택한 몇 안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문명에 눈뜨게 하기 위해 당시에 선진국인 애굽으로 보내어 개화된 문물(文物)에 접하게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풍습과 사고방식이 애굽화한 데다가 애굽인의 압제에 크게 시달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상숭배의 나라 애굽에서 구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풍속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뿐이고, 툭하면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급선무는 이런 우상 숭배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의 총본산이나 다름 없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죄

는 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짓게 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므로, 이런 자는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극형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죄는 당신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삿제 당신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 보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살 수 있어요!” 하고 항의하는 소리를 곧잘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쟁이들보다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끝내는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계16:14 참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간첩죄입니다. 간첩이란 김일성의 충신이며 대한민국을 해치는 역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적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사함을 받을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량한 이방인보다 고약한 예수쟁이를 그나마 더 어여뻐 여기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대항하기 위해 공중 권세까지도 잡고 있는(엡2:2) 마귀의 놀라운 권능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 때문에 공중 권세

를 잡고 있을까요? 마귀가 심심해서 공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에 베푸는 은혜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 및 찬양과 기도를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단10:13) 나는 이상 중에 보아서 더욱 잘 압니다.

오늘날 마귀가 땅에서 여간 으스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당신의 종을 내세워 차단된 하늘의 장막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숨통을 튼 셈입니다. 일찍이 스테반은 이 숨통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하였으며, 베드로도 이 숨통을 통해 내리는 성령의 은총을 받고 비로소 대담하게 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을 부여 주는 역사가 베풀어질 때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게 마련입니다.

‘이긴자’란 요컨대 하나님과 직통되는 은혜의 다림줄을 잡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줄기를 통하여 많은 신도를 당신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줄기 자체는 마귀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지만, 땅에서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할 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휘방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보낼 것을 보내게 하고 땅에서 올라갈 것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역사입니다.

Chapter 09.

하나님의 도와 이긴자의 도



1)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사실은 성령이 개입하여 쓰게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야 성경도 사람이 종이에 글자를 적은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 담긴 내용은 다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읽습니까?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가감이 있을 수 없고, 무슨 조건이 따를 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참한 전쟁 이야기 속에 심오한 사상이 깃들어 있는가 하면, 평범한 대화 속에 서릿발 같은 경고가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구절도 무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루는 주님을 따라 전도에 나선 제자 한 사람이,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며, 주님은 마땅히 허락해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오라.” (마8:22)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주가 되는 장본인은 물론, 옆에서 함께 듣던 다른 제자들도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장사도 지내지 말고 전도를 하란 말인가?” 당연한 의문이자 항의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법도의 경중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가지 법도 중에서 전자를 앞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소중한 일이지만,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가려야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하나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라.”는 이 ‘죽은 사람들’이란 물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즉 숨을 쉬고 살아 있기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개념(의미)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고고(孤高)하고 싸늘한 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괜한 소리입니다.

이때 만일 그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가져오는 반면에 불신자들과 행동을 같이하는 동안에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그 제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사지내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하고 여전히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일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일일 수 있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찮은 일도 하나님께는 큰일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열심히 따른 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에게 따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에게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다.” (마19:28)

주님의 이 대답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직접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 그런 권세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노릇을 하던 예수가 이런 위대한 분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청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요14:6)고 말할 때 내로라던 사람들은 거의 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긴자가 움직이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긴자를 통해 분명한 증거를 내세워 역사하는데도, 사람들은 ‘설마’하고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폐했던 땅을 기업(基業)으로 상속케 하리라.”(사49:8)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긴자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약속했는데,(계3:21)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질그릇 같은 심령이 맑아져 금강석이 담기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집을 세우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영적인 목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때’에 적응하는 우리의 몸가짐입니다. 하늘의 은총도 은총이지만, 땅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정신력(영력)을 길러야 합니다.

2) 말씀의 차원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땅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비교하면 백지 상태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세계는 아리송한 데가 많습시다.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습시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권능에 대해서는 분

명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주님은 위대한 권능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려니,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이나 먹이고도 남게 하는 등,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무슨 요술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도 육을 입고 땅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그의 증거로 제자 몇 사람을 인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인물로 모태에서부터 충만한 성령을 받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업적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동안 열렬히 증거했으나, 나중에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기 입으로 증거한 분을 의심하다니,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기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대우가 아주 형편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를 한 번 의심한 죄과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분신으로 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치 않을

때,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움직임이 이처럼 시원치 못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만일 이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랐던들, 베드로와 같은 불학무식한 어부에게 수제자의 자리가 돌아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열두 제자 축에 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요행이라면 요행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때를 잘 만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따르기는 했지만 주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온 줄로 알았지, 백성들을 대속하러 온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은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즉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굼직굼직한 감투를 쓰러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장관

감으로 사람들의 각광(脚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을 괘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괘시하기는 커녕 제자들에게 잘 보여야 군수나 면장이라도 얻어걸릴 판이니, 제자들을 받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지방에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일렀습니다.(눅9:1) 그런데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러하고 검 없는 자는 겂옷을 팔아 살지어다.”(눅22:36)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말씀을 했을까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즉 한때는 기사와 이적에 의한 주님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제자들이 어디 가나 병고치고 권능을 행하면 환영을 받았으므로 전대나 주머니 같은 것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도 생기고 음식도 배불리 얻어먹고 노자도 넉넉히 타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후에 70문도를 전도하러 각처에 내보내었는데(눅10:1) 역시 반응이 좋아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들도 제자 못지않은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적인 말씀을 터뜨려 당신의 정체(正體)를 드러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차츰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요14:6)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3) 하고 설교하게 되자, 그들은 고개를 옆으로 설레설레 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날은 정해져 있고 해서, 불가불 당신의 위치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저희끼리 모이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날 버릴 테냐?”(요6:67) 얼마나 안타까운 질문입니까!

주님은 처음에 영적인 말씀은 되도록 삼갔습니다. 유명한 ‘산상 수훈’에서도 주님은 영적인 의미로 한 말을 사람들은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산상 수훈’이 매우 깊은 말씀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यो,”(마5:3) 이렇게 시작하는 산상 수훈의 말씀들은 덕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초기단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진리(眞理)를 전하자 인기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주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대도 주머니도 준비하라고 일렸습니다. 전에는 주의 명성 하나로 먹고 입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국면이 달라져 주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전에는 주님이 메시아로 소문이 났으나, 이제는 죽일 놈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주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여도 지도자의 인기가 상승할 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일하기 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많아도 도우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전대

를 손수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시나
영경귀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파
선되면 다 죽습니다. 나는 이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락과 생사
를 나누려고 합니다.

Chapter 10.

천사에 대하여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다마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과 신령한 이야기를 더러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개개인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천사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後嗣)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히1:14) 천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유1:6, 벴후2: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상대로 역사하시므로,(암3:7) 천사도 하나님의 종들과 자주 접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는 장본인 몰래 천사가 활동하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풍랑을 만났다가 혼자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천사는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나 마음대로 무상출입할 수 있으며, 우리 앞에는 대체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하면 온데간데없습니다. 일종의 ‘투명 인간’이라고나 할까요? 그야말로 도깨비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영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천사입니다. 주님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영체로 계십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도 지성소에 영체로 가 있으며, 우리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체로 홀연히 변화합니다.(고전15:51)

그런데 주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와 계신 33년 동안은 영체가 아니라,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도 입어야 하고, 음식도 잡수셔야 하고, 찌르면 피도 흘렸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체인 천사보다도 못한 처지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주님을 가리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히2:9)라고 했습니다. 여기 ‘잠깐 동안’이란 33년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은 친히 지은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러 오

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었다.”(갈3:13)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가는 주님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육을 입고 계실 때의 주님과 육을 벗어버린 주님은 하늘과 땅 만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체는 사람의 눈(육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게 하려면 육적인 모습으로 화해야 합니다. 주께서 육을 벗은 후 갈릴리에 나타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주님은 권능으로 잠깐 변장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자연인(自然人)과는 물론 다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불같이 뜨거운 은혜가 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현재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불같이 느껴질 뿐 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실제로 이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호14:5)라고 했습니다. 이슬이 아니라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슬이라고 느끼는 것은 감각이지, 실체(實體)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 실체는 주의 피의 대가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에게

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체이기는 하지만 이 삼위의 어디에도 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바람과 불꽃의 역할을 하는데 그칩니다.(히1:7)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바람이 획 불어 닦쳤거나 불꽃이 번쩍 했다면 천사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사를 부리는 영체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한 후에는 천사를 부리게 됩니다.(고전6:3) 즉 천사보다 상위(上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천사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친 주님을 천사들이 시중들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시는 주님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는’ 것입니다.(눅22:43)

계시록에 보면 이긴자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계3:5)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이긴자를 천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긴자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비교적 한가합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난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는 주의 지시에 따라 십자가의 군병의 수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며, 따라서 ‘구원 얻을 후사’(히1:14)의 수가 단시일에 크게 늘게 되므로 천사들도 자연스럽게 분주하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교류가 빈

변해지고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군병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Part 02.

진리 안에서



11. 천지 창조 · 12.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 · 13. 감람나무에 대하여 · 14.
믿음은 스스로 키워야 한다

Chapter 11.

천지 창조



1) 위대한 창업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사43:7) 즉 하나님에게는 창조를 하실 때 이미 목표가 있었고, 그것은 당신의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 아담, 하와를 꼬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업을 훼방하는 적대자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마귀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자가 다 영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를 태고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볼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올바르게 풀리며,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1:3-4) 하나님께서 빛을 좋게 보았다는 말씀은 좋게 보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 좋게 보지 않은 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흔히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대체로 45억 년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 이러한 견해 차이는 곧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구의 나이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정한 것은 넷째 날입니다. (창1:14)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나눈 첫째 날이나 물을 지은 둘째 날, 또는 각종 식물을 지은 셋째 날이 얼마나 오랜 시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일 동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걀에서 병아리가 생겨나는 데도 20일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하는데,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어떻게 며칠 동안에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를 6천 년으로 보는 것은 그릇된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을 지은 둘째 날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둘째 날과 셋째 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 우주 창조의 과정을 긴 세월에 걸쳐 이상 중에 보았던들 좀 더 자세히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 밖에 살지 못했으니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앙생활에 별로 요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계시를 보는 자가 육신을 가진 모세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체(靈體)였다면 그 계시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며, 따라서 표현도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마치 수면에 떠서 왔다갔다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창1:2) 그럼 이 ‘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창1:7) 물은 액체로 색깔도 맛도 없고, 끓이면 수증기로 증발되며, 얼면 고체로 굳어 버립니다. 기체가 된 물은 궁창 위에 오르고, 액체가 된 물은 궁창 아래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일상적인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궁창 위의 물은 하늘나라의 일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연한이나 날짜 같은 것이 없었으며, 따라서 하루니 이틀이니 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긴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긴 시간의 흐름을 성경에

는 편의상 하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명)이 없는데 몇 해나 몇 월 며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섯째 되는 날에 생물을 지으시고 이어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때에도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주 창조의 이 여섯째 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날이 지나 일곱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1) 하나님께서 안식하려면 새 하늘나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루시는 중에 계십니다.

이 세대는 인간이 창조된 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섯째 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섯째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세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새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이며, 이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의 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지난날의 우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계21:1) 이것을 가리켜 잃었던 에덴을 회복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작업을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기 쉽겠지만, 나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아 실제로 나타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아 주의 피 권

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두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병이 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담과 하와

나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해 창세기에 대해 조금씩 언급하고 비워 둔 공백을 메웠습니다. 아마도 나 대신 주님이 직접 설명하시더라도 말씀의 내용은 같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계시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즉 창세기를 ‘알파’라고 하면 계시록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알면 창세기도 알고,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호와께서 우주의 창업에 실패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성공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실패한 여호와의 역사를 회복하는 과정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니라.”(창2:7)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고 하나님께서 조각가처럼 흙으

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입김을 획 불어넣자 금세 인간이 된 것으로 알기 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흠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흠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흠은 아담이 범죄에 떨어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한, 변질된 흠입니다.(창3:18)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형상(形相)대로 흠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흠과 티가 없는 아담이 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경위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긴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공들여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사43:7)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보금자리로써 에덴동산을 창설했습니다.(창2:8) 그런데 아담은 흠 없는 신령한 몸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므로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먹고사는 음식이 곧 ‘생명 과일’입니다. 이 생명 과일은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과가 아니며, 따라서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생리 작용은 하지 않지만, 편의상 알기 쉽게 과일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업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다섯째 날까지는 잠자코 있었으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는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분신(分身)이 생기게 되자,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에덴동산의 복판에 있는 선악과에 자기의 생기(독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모방 능력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이러한 능력을 저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맺은 하나의 룰(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공작을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간계를 알아차리고 아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동산 복판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을 테니 조심해라!”(창2:17) 아담에게는 마귀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동안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평안히 살 수 있었으나, 거기에 이미 마귀의 마수가 뻗쳐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공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만 교류하고 있었다면 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적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문단속을 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덴동산은 문자 그대로의 이상향으로, 호화찬란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아담에게 배필이 없어 여호와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

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 내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을 때처럼 흙으로 하나의 형상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하와가 아담과 동등하게 만들어져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폐단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녀 간에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두어 절도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뱀을 내세워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로 했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그런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라, 아담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오늘날과 같이 땅바닥을 기어 다니게 된 것은 하와를 꼬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창3:14)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물도 흙으로 훌륭하게 지었으므로,(창2:19) 아담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뱀은 아담보다 만만한 하와에게 가서 꼬이기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다니, 천만의 말씀이야. 너희가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창3:4-5)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보니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권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흠으로 사람을 빚어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흠으로 제 2아담을 만들어도 이미 마귀가 발판을 마련했으므로 또 다시 그 밭이 될 터이니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일정한 영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현재 이 지구상에는 약 4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다 덤벼도 마귀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체이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술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스란히 당하기만 한 것을 아실 겁니다.(출7:11) 주의 피 권세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도저히 처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고 말했는데, 이 경우에 마귀와 싸우는 무기는 물론 주의 핏니다. 우리 힘으로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된 뱀은 하와를 꼬였습니다. 만일 하와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다면 꼬여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 에덴성회를 제일 미워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께서 피를 흘리신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군병의 수가 차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쉽사리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

다.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막연히, ‘믿으면 되겠지’ 하고 따라가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무려 9억 9천만이 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실로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가로채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 올릴 만한 기도만 금향로에 담아 여호와와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계8:4)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당부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독소가 저들의 전신에 퍼져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단순히, “눈이 밝아졌다.”(창3:7)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큰 이변(異變)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긴긴 세월을 두고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지었지, 그게 우리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하고 말입니다. ‘이방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벗었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더냐?”(창3: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나눈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아담

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가 알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미처 모르고 살아온 아담이, 우리네와 같은 죄인으로 격화된 순간에 아담에게 나타난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귀가 심어준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체내에는 죽음이 도사리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원죄의 특징으로, 우리가 대대로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아담, 하와는 신령하여 죽음을 모르게 되어 있었으나, 마귀의 함정에 떨어지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려, ‘배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살게 하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담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후손들에 대한 노아나 요셉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와 말씀이 어찌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범죄자에게 놀라운 선고를 내리고 사라지자, 에덴동산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은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는 냉대로 돌변하여 축복을 받을 사람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슬픔을 모르던 인간에게는 비극이 일어나, 완전히 국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주께서 몸소 피를 흘리는 곤욕을 치러, 생명을 주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요6:51)이란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의 양식인 생수를 가리킵니다. 이 생수는 우리의 죄를 씻는 요소가 되며,(속 13:1) 이 생수가 내리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 권세로 그 종을 통하여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에덴동산

에덴동산은 죄를 지은 자가 거할 수 없는 곳으로,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불어 영생불사(永生不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창2:27) 우리는 이 형상이라는 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 형상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형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육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여 만지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며, 어디나 마음대로 내왕하고 기거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 죄를 지은 이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가 죄에 빠진 직후부터 느낌이 달라져 부끄러움도 알고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창3:7)

그런데 이 아담, 하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피조물이므로 생명 과일을 먹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과일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스름한

그런 과일이 아니며, 따라서 맛을 느끼되 소화되는 일이 없는 신령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을 쫓겨난 후에는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천사)들을 시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여, (창3:24)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영원히 죄악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설마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되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지는 않을 테지요.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이야기이며,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한 번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한 번쯤 용서하여 에덴동산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즉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에덴동산에 마귀가 침투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침투하면 이미 이들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악령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요소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세력이 몇 갑절 강해집니다. 한 번 성령을 받았다가 쏟아버리면 심령이 더욱 완악해지는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독소를 넣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했을 때만 해도 마귀는 아담을 크게 유혹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은 신령한 또 하나의 인간, 즉 하와를 지어내자 극성스럽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마귀에게 불리하므로 미리 손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 하와는 돌변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저 시베리아 땅에 이주해서 사는 유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툴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보호했으며, (창3:21) 생육(生育)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4:1) 이들과 그 후손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힘입어 천 년 가까이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창6:2)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자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창6:3)

그 후로 인간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위시하여 그 후손들의 몸에 침투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작업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동산에서 뱀이 꼬여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되찾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뺏어 와야 했습니다.

한편 마귀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했으며,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흔히 권세 잡은 자를 통해 크게 역사합니다. 네로를 격동시켜 기독교도를 대량 학살한 것도 그 하나의 실례(實例)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도전이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세 단계를 거쳐 나중에 가서 끝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때 비로소 인류를 다시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동산, 곧 신령한 그 세계에는 마귀가 완전히 발등상 되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밤(어둠의 세력)이 없으며, 하나님의 광휘로 말미암아 항상 낮과 같이 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 월, 일, 시(年, 月, 日, 時)가 없습니다. 영원히 빛 가운데 끝없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12.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



1) 시험의 종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고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까닭을 알고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세상을 되찾고, 죽을 목숨을 죽지 않을 목숨으로 바꾸려는 싸움이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차지한 세상에 살면서 탄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그리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땅에서 호적을 떼어 하늘에 옮기려고 합니다. 즉 마귀의 편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바람이 일게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바람이 곧 ‘시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말
인즉 합의이혼 운운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되려면 잠 못
이루는 여러 밤과 많은 언쟁과 나아가서는 주먹다짐도 불사하는
파란곡절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놓여나 주님
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영적인 혼인이 어찌 쉽게 이루어질 수 있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싸워나가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에게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
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외아들 이삭
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거나, 바벨론 방백(方伯)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
해 물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신(대하32:31) 경우가 그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
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
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심이라.”(신8:2)고 했으며, 다윗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돌아보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시17:3)고 말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세
울 때 용의주도한 배려를 하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약한데다가 마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못 미더워하며,(욘4:18) 따라서 신중을 기하시는 것입니

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비로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께 대한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는 주께서 하늘의 도를 전하러 나서기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다 물리쳤지만, 이때 주님을 대하는 마귀의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마4:5) 이것을 보더라도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도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니 망정이지, 우리 같으면 지상에서 총궐기하여도 당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영체이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침실에도 무상출입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줄 알지도 못합니다. 요새 신문에 인공위성이 화성(火星)에 착륙했다고 지구 전체가 온통 축제 기분에 휩싸여 있는데, 마귀는 화성 짙은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추장스러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 한 번 닿으려면 무려 10억 불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를 당해 내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능히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다름 아닌 주님의 보혈입니다. 천하만국을 차지한 마귀도 이 보혈 앞에서는 찢절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의(義)의 군병에게 서열이 정해지

는 것처럼 마귀의 우두머리인 용의 졸개들에게도 고하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주님을 능히 시험할 만한 큰 권세를 부리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찢절매다가 도망치는 마귀도 있습니다.(눅4:34) 이런 크고 작은 마귀가 수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기 때문에 만유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쉬 이루어지지 못하고 6천 년 동안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든지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마26:39) 이 ‘할 만 하시거든’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구차스럽게 조건부로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주님을 산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피 권세로 악(惡)의 세력을 무찌르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하는 일이요,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무슨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에 의해 더러운 죄를 씻음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인격을 필요로 하지만, 인격으로 그 나라에 가고 못 가는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죄에 대하여 못마땅

하게 생각합니다. “대체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만날 죄, 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죄에 대한 의식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자의식(自意識)이 눈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는 생명, 곧 피(창9:4)에 의해 유전됩니다.(벧전1:18) 가령 아버지의 죄가 열 가지고 어머니의 죄가 다섯 가지라면, 그 사에서 생긴 자식은 열다섯 가지의 죄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며, 이 자식은 더욱 많은 죄를 그 자식에게 물려주어 몇 세대가 지나면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엄청난 죄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라.”(시51:5)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 못하는 어린이도 엄밀히 말하면 죄인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젖먹이 어린애에게 안찰을 했을 때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손길을 통하여 주의 진액(성령)을 받을 때, 몹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의 세력(죄)과 맞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즉 비단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와 유전죄가 함께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마귀에게 ‘요주의 인물(要注意人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적수(敵手)이기 때문입니다. 만

일 상대방에게 성령이 같이하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잠자코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내 쫓지 않는다.”(막3:23)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써(약1:14)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받을 욕심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에게 돈 10만원을 꾸어줬는데 상대방이 장사를 하다가 날려버려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돈 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 것으로 알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약1:13)

인간은 연약하여 말과 행실에서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에 그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딴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책임 있는 주체(主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딴 사람에게 돌릴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망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들어 쓰시려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배격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우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

고”의 시험은 주로 우리 자신의 잘못에서 오는 시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 비극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역사하시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이며, 이 경우에 그 선택에 여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적진에 파송하는 야전사령관 격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경우를 살펴볼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무나 장수로 임명하여 싸움터로 보내겠습니까? 요컨대 하나님의 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의 사명이 클수록 오랜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腹中)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列邦)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점찍어 두셨던 것입니다. 야곱, 모세, 삼손, 세레 요한, 바울의 경우도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며, 예레미야를 낳은 부모나 예레미야 자신도 까맣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장본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말하면 ‘비극의 선지자’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늘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늉만 하는 모든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종교의 핵심은 심령 속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호와와 마음을 살피며 폐부(肺腑)를 시험하여” (렘17:9) 행위 대로 보응하므로, “묵은 땅을 갈아” (렘4:3)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며, 자행자지(自行自止)할 뿐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으로 인하여 모욕거리가 되면” (렘20:8)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격동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희가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렘20:10) 여기서 ‘타락’이니 ‘유혹’이니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독신 생활을 한 데서 벗어난 허무맹랑한 억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과 그 백성들은 피차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두둔하며,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백성들의 견해가 옳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12:1 참조) 아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책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무지와 오해, 중상 등으로 곤경에 빠져, 바벨론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이 없었더라면...” (렘20:14) 이것은 예레미야의 탄식 섞인 독백(獨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저들 자신을 위해 큰 불찰이라 하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괴로움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렘11:14)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금한 고사(故事)를 상기하게 됩니다.(신3:26) 하나님은 으레 당신의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이런 두려운 지시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노여움은 백성들이나 종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시66:18)는 것을 알고, 여호와와의 눈 밖에 날까 언제나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진대, 여러분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

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등 큰 죄악을 저지른 결과, 저들이 당대에 당한 환난도 환난이지만, 대대로 저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흠어져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렘24:9)

어떤 사람은, ‘아니 우상 앞에 절 좀 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제1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20:3)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제1조를 범하고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자고로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요컨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 본위로 해석해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또 그래야 합니다. 즉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을 드러냈느냐 하는데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양자는 법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양자가 다 숭상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기독교 윤리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큰 부덕이 없지만, 세상의 윤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이러한 물음이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관(倫理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3) 주님과 시험

성경에는 주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시험이란 우리네 죄인이나 받는 것이지, 주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4:1)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주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나서, 전도의 길에 오르기 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늘의 도를 전파하는 공생활(公生活)에 접어들기 전에 일단 시험을 거쳤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동참했던 주께서 왜 포교(布教)에 앞서 시험을 당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시다. 왜?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시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마귀의 손에 붙여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곧잘 인도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전도의 방향을 바꾸었으며(행16:6)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행8:38) 주님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면 대뜸 ‘우주를 지으신 주님, 죽지 않는 길을 터놓으신 주님’ 하고 거창한 생각부터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목수인 일개 시골 청년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기 쉽습시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 얼른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에게는 사람 앞에 내세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모도 잘생기지 못하고, 풍채도 없어 멸시를 받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사53:3) 주님은 말씀의 존재로 계셔서(요1:1) 우주의 창엽에 동참하신 분이기는 하지만,(창1:26)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히2:9)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히5:8)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큰일을 맡기시기에 앞서, 일단 마귀와 대적하게 하는 신중을 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강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은 주로 육적인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데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마귀는 주께서 목수 일만 하고 계실 때에는 잠자코 있었으나, 주님에게 성령이 임하자 곧 알아차리고 주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일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그친 동안은 마귀가 주님에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 내가 부탁한 책상 어떻게 됐나?”

“네, 곧 다 됩니다.”

아마 평소에 주님은 이런 대화도 동리 사람과 흔히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숫제 주님을 죽여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폭 놓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마구 쏟아져 내리자 마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강적(強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만 하면 일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큰 화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책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불철주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에 주님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 날 터이니 그때그때 이리저리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류를 마치고 시장기를 느꼈을 때 마귀는 그 허(虛)를 찔렀습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마4:3)라고 시험했습니다. 주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였다면, 마귀는 “네가 선지자라면” 하고 수작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마귀는 벌써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흔들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마귀의 계교를 말씀으로 때리자,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할 테니 한번 해보라고 주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마4:6)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마귀를 쳤습니다. 끝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모두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마4:9)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님에게 외람되어 자기 부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유혹도 말씀 한 마디로 깨끗이 물리쳤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히2:9)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해야 할 것은 마귀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즉 마귀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겠습니다. 마귀는 주님까지도 시험해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주님 다음으로 마귀가 악착같이 덤벼드는 것

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마귀와 겨루다가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모세, 솔로몬, 세레 요한, 삼손 등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귀가 결코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4) 바울의 시험

역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제일 많은 시험을 겪은 분은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로 순교할 때까지 줄곧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바울의 행적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셨으며, 그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重且大)하였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큰 인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여 자기가 열심히 신봉한 유대교의 신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에 앞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이 성(城)에서 자랐으며, 율법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의 문하(門下)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의해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당신 네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입니다.” (행22:3) 말하자면 그는

학식이나 신앙에 있어서 남에게 본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이로 명예도 지위도 약속된, 이를테면 순탄한 출세가도(出世街道)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원한다면 처자식 거느리고 유명한 감독이나 율법사쯤 되어 평안히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먹고 입을 걱정이 따를 리 없고, 그가 시험 같은 것으로 시달릴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주님의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루아침에 주를 증거하는 새 일꾼으로 전향하게 되자, 한 번도 편한 잠을 자보지 못할 정도로 들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면, ‘수고를 넘치도록’ 했던 것입니다.(고후11:23)

그는 감옥에 무상출입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의 서신들 중 몇은 이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곤장을 맞았으며, “도적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험 가운데서 헐벗고 굶주리며, 떨며 늘 교회를 위해 염려”(고후 11:26-28)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다 감당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이러한 연단 속에서 “정금(精金)보다 희귀하게 되어”(사13:12) 자기 갈 길을 다 달려갔던 것입니다.(딤후4:7)

그는 이상 중에 하나님 앞에 불려간 영광을 차지한 사실을 14년 후에 이렇게 발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고후12:2)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겪은 일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의심할까봐 되도록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요컨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가’에서 그는 바울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혼이 몸 안에 있었으면 산 것이고, 몸 밖에 있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때의 바울은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당했을 때와 방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몸은 땅에 있고, 혼이 뚱뚱 떠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무슨 보물단지나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몰래 가슴에 품고 있다가, 14년이 지나 자기를 따르던 양떼들의 수가 많아져 자기 말이 잘 먹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조심스럽게 발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하늘나라를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깊은 단계의 영적인 말씀을 많이 터뜨린 것은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고후12:2) 주의 종으로서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본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자고(自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습니다.(고후12:7) 이 가시는 누구나 얼른 알아볼 수 있는 육신의 결함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갈4:14)라는 말이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바울과 그 ‘자녀’(양떼)들을 이간시키는 데도 안

성맞춤이었습니다.(갈4:17)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의 농간으로 양떼들을 만나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고후10:10) 이렇게 되면 자연히 바울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양떼들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찌르는 가시를 받았다는 것은 과히 명예로운 일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약한 구석이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불우한 역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기꺼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지성소에 가 있는 역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도중하차를 당하고 만 분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들이 세상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주로 돈과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등 공신(功臣)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꺾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시’는 그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낸 이유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받은 시험도 없지 않았으나, 무난히 이겨나갔습니다. ‘가시’의 신세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권능과 고난에 있어서 바울은 단연 타(他)의 추종을 불

허하지만, 또한 양떼들에게서 받은 존경도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4:14)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고후12:19)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바울 당대의 유가 아닙니다. 하긴 나라에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 사람을 마구 잡아 가두거나 곤장을 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여간 거세게 몰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옛날과는 달리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성이 덜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바라는 좋은 조건입니다.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괴롭습니까? 불안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 무슨 농간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짜증이 납니다. 약해집니다. 마음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은 육적인 것이었으나,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따릅니다.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5) 성도의 시험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곤고함과 수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을 고힘(苦海)니, 진세(塵世)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세상에 남녀와 노소를 가릴 것 없이 각각 자기 나름의 힘에 겨운 짐들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 짐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는 무거워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이 고난의 멍에에서 아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기를 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생활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괴로운 일은 되도록 피하거나 줄이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즐거운 일은 극히 순간적인 반면에, 괴로운 일이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생애는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한 줌 흙으로 돌아가거나 재가 되어 훨훨 날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보다 더 허무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지으실 일이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의 소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아담, 하와는 우리네와 같은 이런 죄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며 고생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창3:19)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 세상을 회복하여 새 세계를 이룩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6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훼방하는 것이 곧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많은 체험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벧전4:12-13)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을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가르침은 그의 산경험의 소산이라, 더욱 감명 깊게 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즐거움이 지닌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컨대 고난 뒤에 누리게 될 그 나라에서의 영광으로 인한 희열(喜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안이한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따라서 기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교입니다.

그러니 순교하여 하늘의 군대, 곧 맬기세텍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분들이 수도룩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자진해

서 더욱 많은 고난(시험)을 당하려고 했으며,^(고후6:4) 야고보도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약1:2) 이런 분들에게 죽음이 두려울 까닭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사도들이지만,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해온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 네로의 광적인 기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이 된 순교자들에서 오늘날 공산당의 총검에 쓰러진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 하늘의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14만 4천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 나머지 인원을 단시일 내에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순교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주의 피 권세로 씻어 세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울타리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와 장소를 잘 타고나야 하며, 또한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다림줄을 튼튼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계20:4 참조) 오늘날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는 일찍이 유례없는 큰 성령의 역사이며, 여러분은 그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으므로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리치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크고 오래수록 여러분은 장성하게 마련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자랄수록 시험이 큰 것입니다. 이긴자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자는 오랜 연단과 시험을 이겨야 하며, 그 후에는 주께서 지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를 따라 그 반열에 설 때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음을 받아 믿음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천사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행12:7-11 참조\)](#) 그러나 그때까지는 고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군대가 되어 저 마귀와의 마지막 일대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를 능히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라야 이긴다.” [\(계17:14\)](#)고 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회피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따라서 기도의 목소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시간 쓰라린 고난을 당하면 다시 사실 것을 아는 주님도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당하기가 그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을 입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님은 곧 생각을 가다듬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마는.

오늘날 주님은 영체이시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걸 이기고 또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를 향한 뜨거운 호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입장권)은 따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날 이 땅에서 이긴자를 통해 강력한 성령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아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hapter 13.

감람나무에 대하여



1) 감람나무의 유래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해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감람나무에 대하여 간과해 버리거나, 언급하더라도 그 해석이 구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감람나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창세기 8장 노아 때의 일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제1 조상이요, 노아는 제2 조상으로, 우리는 이 노아의 고사(故事)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본의 아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물로 인간을 멸해 버리다

니,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담!” 하고 생각하거나,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려? 지으실 때는 언제고. 그건 일종의 자기모순이야.” 일리는 있지만, 이쯤 되면 참으로 외람된 망언(妄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처지와 그 고충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홍수로 멸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으로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사43:7) 그런데 인간을 지어 놓고 보니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통해 불영광을 받게 생겼던 것입니다. 왜?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창6:5-6) 여기서 말하는 죄악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창6:2) 것입니다. 즉 노아 때 벌써 음란죄가 큰 두통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였다고 했습니다.

후회란 뉘우침을 가리키며, 뉘우침은 자기가 능치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즉 그것은 전능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는 전능치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귀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물로 멸하고, 의로운 노아의 후손으로 하여금 좀 더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과는 인연이 없는 당신의 나라를 되찾으려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호와와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숨을 그야말로 초개와 같이 다루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여호와께서 인류에게 역사하신 가장 큰 사건으로, 오늘날 아라랏 산에서 방주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잣나무 널빤지가 발견되고, 홍수 이전의 도시들(가우라, 우르, 기슈, 라루사 등등)이 발굴되는 등,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도 입증되고 있지만, 이 홍수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눈이 아니면 읽어도 모르고, 인침을 받은 귀가 아니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을 남달리 공경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로는 남이야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묵묵히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만큼 강직하고 끈기 있고 또 지조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하늘 아래 태평세월을 구가하는 판국인데, 홍수가 난다고 큰 초등학교만한 배를 만들면서 날마다 법석을 해대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니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슷제 미친 사람으로 돌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이상 중에 받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만을 철석같이 믿고 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를 조롱하는 친척과 친구 그 밖의 이웃들에 대해 속

으로 코웃음은 칠망정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홍수로 멸망당할 터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 따라 아내와 아들 및 자부들만 홍수를 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가 전도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도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며느리만 보고 손자를 보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홍수가 앗아갈 터이므로 미리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새 말로, 피임을 하도록 아들 내외들에게 철저히 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새로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직계 가족과 한 쌍의 모든 생물들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나 방주의 규모나 구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과 노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배는 바다나 강가에서 만들어 물위에 띄우게 마련이지만, 노아의 경우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즉 노아는 바닷가나 강변에다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육지의 허허 벌판에서 만들어 홍수가 나면 저절로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산 속에 들어가 쌍쌍이 잡아온 것이 아니라, 떼를 지어 방주로 몰려오는 것을 노아가 가려서 한 쌍씩 배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며, 또 그래야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멎고,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가 맨 처음

입에 물고 돌아온 것이 다름 아닌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즉 감람나무는 물속에서 제일 먼저 햇빛을 본 나무였던 것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직 지구 위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이 지나 다시 방주에 있는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이 어지간히 가서서 땅 위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귀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감람나무를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표시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호14:6, 속4:12 참조) 이 감람나무는 주의 지시에 따라 택한 백성들을 죄의 홍수 속에서 건지기 위해, 영적인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2) 감람나무의 의미

감람나무는 영어로 ‘올리브 트리’(olive tree)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속4:14) 사사기에 보면 이 감람나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그 영화는 왕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고 했습니다.(삿9:9)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감람나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감람나무의 속성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백향목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호14:6) 그 열매의

기름은 거룩한 성전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으로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피로 구속을 받아 거듭난 속사람의 인격의 고귀함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호 14:5-6)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굳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그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감람나무, 곧 성경적인 인물인 이긴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아 왔고, 또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즉 감람나무의 그 ‘이슬’과 ‘향취’ 가운데 부름을 받은 가지들의 믿음이 새로운 말씀과 생수 등의 은총으로 백향목의 뿌리 같이 튼튼히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하는 그 이슬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이슬은 ‘육적인 이슬’이 아니라 ‘영적인 이슬’, 즉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가 이슬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

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알게 모르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이슬의 형태로 강하게 내리는 것은 ‘감람나무 시대’의 일입니다. 이것이 곧 “말세에 부어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며(골2:28) 주의 피로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리하여 “내 피를 마시라.”(요6:53)는 주님의 말씀이 이때 본격적으로 응해지게 됩니다.

만일 주님의 피가 이런 성령으로 화한 은총을 의미하지 않고 2천 년 전 골고다에서 흘린 주의 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를 보관할 수도 없지만,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제일 가까운 육친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눠 마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차례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피는 오늘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이슬이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현실과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됩니다. 즉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마음이 맑아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향간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괴상한 방언을 따따거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무당도 마귀의 신을 충만히 받으면 신비로운 힘으로 병도 고치고, 심지어 시퍼렇게 날선 칼날 위에 맨발로 서서 춤을 추어도 끄떡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간의 몸 안에 깃들어 있는 혼이 마귀의 영을 받

아들여 힘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육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체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을 입은 인간도 영체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만일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을 입고 잠시 저주받은 바 되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만 다를 뿐 외관상으로 우리네 인간과 비슷하였습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영체로 승천하셨는데 우리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됩니다. 어떻게? 주의 피를 마심으로써, 즉 성령을 받아 신령한 몸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주께서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길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큰 뜻을 마무리 짓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곧 ‘이긴자’(계2:26-27)이며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감춰진 만나(계2:17)가 바로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3) 다니엘의 증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의 일부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에게 발설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예컨대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예고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루어질 일을 2천 수백 년 전에 스가랴나 다니엘의 입을 통해 예고하여 역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될 일을 2천 수백 년 전에 이처럼 알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움직이십니다. 즉 미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 오랜 세월이 걸쳐 마음에 새겨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그대로, 인간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백 년만 해도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단12:1)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때’를 잘못 짚어 가지고 거짓 것들이 말세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고 순진한 양떼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말도 그럴 듯하고, 저 말도 그럴 듯하여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속았구나!’

하고 장탄식을 하는 것이 못 사이비(似而非)의 실태입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까지 나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모르고,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종말은 언제 오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감람나무의 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종이 곧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람나무 시대가 오면 자동적으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 인용한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 천사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마귀를 대적하는 직분을 맡은 천사장으로, 하늘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미가엘 천사와 거의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간에게 큰 복을 내리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담당하여 감람나무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움직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여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고, 마지못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며, 기드온을 도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것이 곧 미가엘 천사였습니다. 이 경우에 미가엘 천사는 물론 하나님을 힘입

어 움직이며, 따라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도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의 승리는 결정적인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오랜 싸움에서 결판을 내는 일대 격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단12:1, 계16:14-16)인 아마겟돈 전쟁이며, ‘그때’란 이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 편에서 감람나무에 의해 편성된 14만 4천의 십자가의 군병이 출정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 전쟁에 출정해 봐야 믿음이 약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 싸움에 나가 마귀와 겨룰 수 있는 하늘의 군병 이외에는 하나님에게 별로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라는 십자가의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영으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 중심인물로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주님이며, 멀리는 선지자들이, 가까이는 이긴자가 주님의 야전 사령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무기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악령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 다시없는 장사라도 마귀 한 마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체로 우리의 이불 속에도 무상출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을 갖고 있으나 육을 입어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5:6)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주의 피 권세로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수도해서 행실이 착해야 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요3:5)고 대답했습니다. 즉 성령으로 되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진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욥2:28)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한 일련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마지막 성업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때’에 대하여 물었더니, “네가 알 바가 아니니 이 글을 봉함하라.” (단12:4)고 지시하고, ‘그때’가 되면 과학의 힘으로 교통이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단12:4)는 것만 알려주고, 이상 중에 강 좌우에 있는 두 하나님의 종에 관해 암시한 후에,(단12:5-7)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한 때, 두 때, 반 때’ 곧 1,260일을 지났을 때가 ‘그때’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단12:7)

하나님께서 암시한 마지막 때의 두 종은 강물 위에서 계신 주님(세마포 옷을 입은 분)에게 강 양옆에 서 있는 두 증인(감람나무) 중 하나가 마지막 때에 대해 문의하는 광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다니엘은 물론, 주님에게도 그 시일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시에 주님이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은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마24:36)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만 마치고, 그 뒤의 일은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6:13) 그리하여 그 “성령을 넘치도록 받아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서 있는 자”(눅4:14) 곧 감람나무, 이긴자가 주의 피 권세로 주께서 오실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세를 운운하지만, 말세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서 주의 피 권세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예언의 실현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사건은 뭐니 뭐니 하여도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굴레라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죽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길이 이때부터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길을 진지하게 찾아보려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근거에 의해,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던들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는 여전히 마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는 어둠 가운데서 한 가닥 서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하셨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여호와의 뜻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있고, 성령을 받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은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지, 하늘나라 자체를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땅에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곧 이긴자 감람나무입니다.(계2:26, 3:21 참조)

이 감람나무에 대해 교계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논의의 대상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설혹 성경 해설집 같은 데서 몇 마디 언급한 것을 봐도 이단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람나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 즉 그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했거나, 이런 인물에 대한 오해 또는 속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보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 그 은혜를 직접 받아 보지 않고서는 감람나무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그 울타리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 감람나무의 역사가 있었느냐, 또는 현재 있느냐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구세주의 출현 다음으로 큰 사건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면 감람나무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주의 피 권세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업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11:1-13, 2:26, 3:21 참조)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나 계시록에 둘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에 가감을 하거나 무슨 조건 같은 것을 붙여서 이려고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람나무가 실제로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이른바 ‘감람나무 시대’가 되면,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큰 권능을 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감람나무를 통하여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고,(호14:5) 주의 피가 담긴 생수가 두 군데서 솟아나 값없이 마실 수 있으며,(슥14:8, 계21:6) 새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계2:17) 철장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으며,(계2:27) 양떼들의 믿음이 백향목 뿌리처럼 깊게 박히게(호14:5)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으며,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여러분은 바보입니까? 아마 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 못지않게 밝은 것으로 자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거의가 신앙생활의 맹장들입니다. 은혜 면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남달리 잘났거나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달리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병이나 고치는 그런 부분적인 은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성경적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리며, 여러분은 현재 그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주를 모신’ 두 증인, 곧 감람나무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함을 입은 종으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리라.”(계11:3-5)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에 대하여는 이미 나온 계시록 강해에서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 말한 1,260일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다른 숫자, 즉 마흔 두 달이니, 3일 반이니, 한 때, 두 때, 반 때니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달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날짜가 아니라, 영적인 일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네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이 ‘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이나 촛불과 같은 그런 불이 아니고, 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가리키며, 현실적으로는 이긴자의 입김으로 나타납니다. 이긴자에게 입김으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이런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긴자가 사흘 반 동안 죽임을 당하는데, “그곳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계 11: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상징적인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죽는 장소가 세 곳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죽음은 다시 살아나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계 11:11) 특히 계시록에는 영적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 표현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곧이곧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긴 신학자들이 대를 이어 연구해도 알쏭달쏭한 것을 나 같이 불학무식한 젊은 사람이 알다니, 남들이 코웃음을 쳐도 나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한 말 가운데 성경과 어긋나는 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을 3년 동안 이끌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벌써 들통이 났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것뿐입니다. 가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마는, 그건 그대로 되었으며, 또 될 것입니다. 나는 3년 전에 감람나무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주의 종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슬픔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하고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도 예레미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독신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양떼들이 순종치 않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러분이 내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명을 기어코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픔의 종이라는 말을 정정하여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무너진 데가 너

무 엄청난기 때문입니다.

내가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말씀과 권능을 들고 나시면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가나안의 귀신들린 한 여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마15:24)고 말씀하시고 일단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각각 맡은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뿌리는 종이고, 바울은 거두는 종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라.’”(계 14:15)고 했는데, 이 ‘이한 낫’을 가진 자가 곧 거두는 종입니다. 이 곡식은 이른바 ‘알곡’을 가리키며, 우리의 이 역사는 요컨대 이 알곡을 만들어 천국 창고에 들여놓는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믿도록 인도하는 종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를 하늘의 군병으로 훈련시키는 종입니다. 인도하는데 그치면 별로 어려울 것 없지만, 다듬어 세우자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날의 영광을 위해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5) 감람나무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당시에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죄에 떨어진 후의 인간은 생각이나 성품이 모자라고 때가 묻어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의 세계에 대해 자기 나름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해 신학자나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감람나무는 그들의 체험 밖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의 종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밀반침이 있을 때 비로소 실감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람나무와 같은 영적인 개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감람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감람나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 이상을 보여 주시고, 스가랴가 잘 아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행적까지 곁들여 비유해 가면서 자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슌4:7-10 참조)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에 대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가리킵니다.(슌4:14) 스가랴서에 보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선 자’,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세상 인구가 10억이든, 50억이든 간에 그 대표로 주를 모시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 기름이 흘러내린다.”(속4:12)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기름’은 주의 피,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람나무에서 금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이 말씀이 실제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의 큰 종은 두 사람을 차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가 있으며, 아무리 큰 종이 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기가 벅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금 기름이 메마르면, 나중 역사에서 다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속14:8) 이 경우에 앞선 역사만 알고 있는 사람은 기름이 아주 끊긴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나중 역사를 알게 되면 소망을 되찾게 마련입니다. 잃었던 은혜가 곧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결코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보(修補)하는 역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중 역사가 끝을 잘 마무리 지을 때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던 앞선 역사도 자연히 불명예를 씻게 되

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역사에서 선두에 서는 사람은 아무래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명시된 ‘두 감람나무’라는 말씀과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기 쉬우며, 감람나무의 역사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나타나면 백성들은 두 파로 갈라져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의 종과 열매를 거둘 때의 종을 따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적당한 시기에 세우게 됩니다. 이 적당한 시기란 앞선 역사가 마무리될 무렵이며, 이것을 성경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슌14:7)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람나무가 혼자서 일하는 동안은 ‘두 감람나무’라고 명시한 성경과 부합되지 않아, 말씀을 억지로 풀이하며 가감을 하는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워갈 때 빛이 따로 생기면’ 그때 말씀이 올바르게 풀려나가 앞뒤의 모든 경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나타난 감춰진 빛이 어둠을 환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선 역사를 이어받아 수보하는 완성의 종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깊은 말씀이 터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단12:5-참조)

주인이 목수를 시켜 집을 짓는데, 마땅치가 않아 그를 물러가게 하고 다른 목수로 바꾸었을 경우에, 새로 고용한 목수에게, “먼저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앞뒤의 자상한

내막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물러가는 목수를 불러 놓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부질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터져 나가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먼저 하는 일과 나중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를 가리킵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자’(속4:14)이고 ‘큰 산도 평지가 되게’(속4:7) 하며, ‘금 같은 기름, 곧 성령을 부어주는 자이며,(속4:12) 이긴자는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이고,(계3:21) ‘만국을 쳐서 질그릇 깨뜨리듯’하고,(계2:27) ‘감취진 만나’, 곧 주의 보혈을 먹여주는 자입니다.(계2:17) 즉 표현만 약간 다를 뿐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감람나무의 역사가 서서히 세대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앞선 역사는 나중 역사에 흡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갈2:9)를 청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돈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한번 감람나무의 금 기름을 받아 마셔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은혜의 시장기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의 가지는 역시 감람나무에게 와야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장되어도 감람나무의 역사는 매장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Chapter 14.

믿음은 스스로 키워야 한다



1) 베드로의 성장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감찰하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이 각자 자기 믿음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을 두어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디 좀먹는 구석이 없나, 하고 살피게 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감사를 게을리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경우를 들어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가 구세주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테니 회개하고 그를 따라야 산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주님을 따

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로 장모의 열병이 낫고(눅4:39) 또 귀신들린 자가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눅4:34)라고 증거하는 등, 기이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놀라기도 했으나, 아직 예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긴가민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따르게 된 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신령한 하늘의 도를 전하고 병이나 고치는 선생님이로 알고 있었는데, 고기도 썩 잘 잡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잡노라고 해도 헛수고를 했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치겠습니다.”(눅5:5) 이것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른 어부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좀 더 깊숙한 데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하시자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는 주님이 당하지 못한다고 자부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고기를 잡는 것까지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선생님, 저는 고기를 잡아 살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저더러 그물을 잘못 쳤다고 하십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쳐 봐야 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의 무

를 아래 엮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알아보고 감히 주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아라.”(눅5:11) 베드로는 두말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나서 건너가는 신중한 사람이었던들 그는 때를 놓쳐 일생을 고기나 잡고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너무 영리하고 되바라지기만 해도 큰일을 못하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단순하며 좀 어수룩한 데가 있어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도왔습니다. 요새 말로 극성파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는 주의 수제자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는 영광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는 동안에 날이 갈수록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심증(心證)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었으나, 아직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분으로 두렵게 섬기는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요

6:53) 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피’와 ‘살’은 물론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며,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주기 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이 말씀을 던지자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역시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이게 될 말인가?”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걸려 떨어진 사람이 수도룩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한테서 떠나려고 하느냐?” (요6:67)

제자들은 마음이 착잡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 6:68-69)

주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날짜가 임박해 오자 이처럼 주님의 입에서 점점 차원이 높은 영적인 말씀이 터져 나가니, 주님께 대한 사람들의 평판도 구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마16:13)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반응을 들어보니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새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16:16)

이것은 새삼 대답할 필요도 없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갔다는 데서도, 우리는 고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처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기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수제자가 왜 이렇게 아둔할까?’ 하고 이상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도 말고 베드로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언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가운데 믿음을 여기까지 키워왔던 것입니다. ‘고기잡이에도 능한 선생님’에서 ‘신령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자라온 신앙의 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음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2) 고넬료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투정을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양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차별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중에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얼마나 몰래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주 입 밖에 내는 그 은혜는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긴 앞선 역사처럼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리던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를 그렇게 내리지 않으며, 또 내려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 문이 닫혔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가 내리기는 내리지만, 여러분의 신앙 정도에 알맞게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매달리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은혜는 물론 감각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많은 은혜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는 기독교의 진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이 손길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이 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꾸준히 매달리기만 하면 더욱 강하게 내릴 것입니다.

고넬료로 말하면 로마 병정의 백부장으로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며, 이방인으로서 처음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도와 재물도 상당히 소유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 처지였으나, 예수에 대한 소문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여러 모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선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실한 생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일축해 버리거나, 속단을 내리면 그만큼 전문이 줄어들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가롯 유다가 예수를 알려고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모든 언동(言動)을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른바 이중인격자(二重人格者)로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의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로마 병정을 몰아내지 못하고, 나라를 해방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마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난 백부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누워 있는 하인의 증풍을 고치러 가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황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저 말씀만 한 마디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나올 텐데 뭘 저의 집까

지 오시려고 합니까?”(눅7:6)하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믿음입니까! 주님도 탄복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하고 한 마디 말씀하여 하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가 좀처럼 몸에 배지 않아서 탈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받았다, 또 무엇을 안다, 다 별로 소용없는 것입니다. 선불리 알았다가는 오히려 말만 많게 되어 신앙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갖은 잡생각을 다 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백부장의 정신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믿음을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팽개쳐 두면 언제 마귀가 쪼아 먹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믿음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 기울였는가를 먼저 알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Part 03.

은혜의 동산



15. 천국에 대하여 · 16. 선지자, 사도, 이긴자 · 17. 재림에 대하여 · 18.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 19. 우리의 재산은 믿음이다 · 20. 오병이어 · 21.
인간을 보지 말라 · 22. 믿음과 행위 · 23. 생명의 불로초(不老草) · 24. 순
종과 축복 · 25.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신다 · 26. 믿음의 뜻대

Chapter 15.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컨대 하늘나라에 적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하늘나라, 즉 천국, 천국 하지만,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편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는 천국을 상상하기가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특별 집회 기간에 이 천국에 대하여 제가 이상 중에 목격한 것을 성경에 준하여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은 영계인데, 거기 가서도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는 영만이 맘대로 활개 치는 세상이나? 그렇다면 천국은 너무 싱겁지 않느냐? —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 천국은 사실 이러저러하다고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화찬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중이나마 실제로 가 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하여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바울이 가 본, 이른바 3층천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후12:2-4)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목격한 낙원, 곧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논리상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늘은 무엇이고, 둘째 하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저 파란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계입니다. 이런 1, 2, 3층천의 구분은 실제로 이상 중에 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나라보다 마귀의 세계가 한결 가까우며,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세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늘 문을 연다.’는 말씀은 이 마귀의 세계에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상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것을 본 것도 하늘 문이 열린 한 광경입니다.(창28:12) 야곱의 눈에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

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상(地上)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일이고,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보혜사 성령이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줄기는 마귀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하며, 로마의 국적을 갖고 외국어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으며,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 괴롭게 했으므로,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고후12:7)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바울이라면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려면 이상 중에도 혼자서는 못 갑니다. 둘째 하늘, 곧 마귀의 세계를 통과하려면 순탄치 않기 때문에 천사의 안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마귀의 세계도 여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령관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상세히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는 달리 마귀의 세계를 돌아보려면 이상 중에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는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족하고

복된 곳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나라가 150개가량 되며, 따라서 왕(국가 원수)도 150명쯤 되지만, 그 나라는 왕의 수만 해도 자그마치 14만 4천이나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천국은 영의 세계이므로 언뜻 생각하면 단조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서도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삽니다. 다만 그 음식은 맛만 기막히게 느낄 뿐, 소화하거나 배설하는 일이 없고, 그 옷은 우리가 입는 모직이나 나일론과 같은 그런 더러움을 타는 옷이 아니며, 집도 우리네의 그것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니 문도 없을 수 없습니다.

‘문 하나씩 들어가서 천사와 같이 살리라.’는 찬송가 그대로입니다. 그 나라는 육적으로 표현하면 금은보화에 싸여 호화롭고, 무지갯빛으로 찬란한 곳이며, 하나님의 광휘로 말미암아 그림자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광경을 보았으나, 한껏 갔다 왔다는 것만, 그것도 14년이 지난 후에 입 밖에 내었을 뿐, 그 광경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이나 별러 오다가 한껏 한다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가 봤다는 말 한마디뿐이고, 그 하늘나라가 어떻더라는 소리는 전혀 비추지도 않았으니, 이런 싱거운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장래에 대해 물었더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 여기 “내가 올 때까지”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가 할 일이 따로 있음을, 다시 말해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암시는 밧모 섬에 귀양 간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 계시록을 쓰게 한 것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미 사도 요한을 택하여 바울이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기로 예정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바울에게 입을 봉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의 광경을 일체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이상 중에 안내를 받아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몸이 공중에 뜨면서 땅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별들이 반짝이는 첫째 하늘을 지나, 무수한 마귀 떼들이 사는 둘째 하늘을 뚫고, 눈부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 이상의 내용은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다른 점이 많지만,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 준 것을 해명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길 때,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한 것처럼, 반드시 언

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며, 그 언약을 피차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서는 주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이 권한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님이 행사하시는 것입니다.(고전15:24, 계 19:6 참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한 발 물러서 계시는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을 입고 몸소 땀을 흘려 생계를 꾸려 간 적도 있어, 우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처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16.

선지자, 사도, 이긴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뒤에서 슬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멋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무수한 신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세대마다 선지자를 지상에 보내어 역사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한 세대 동안 크게 역사하셨을 뿐,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교역자들은 많이 배출했으나 성경에 언약된 하나님의 사람, 곧 이긴자(계2:26 참조)는 근 2천 년 동안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위에서 말한 큰 일꾼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긴자’가 나타났었다면, 못 신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의로운 자’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사도 시대의 베드로나 바울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은 큰 인물은 어떠한가? 그들은 신령하고, 은혜가 많고, 주님과 교류하고, 새로운 말씀도 터뜨리기는 했으나 이긴자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나 바울이 이긴자였다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긴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긴자였다면 구태여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이긴자에 대한 언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바울의 사명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긴자는 성경적인 인물이므로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 3장에 기록된 내용과 그밖에 간간이 단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호14:5-7, 계11:6, 21:6-7)이 실제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권능도 권능이지만 새로운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따라서 바울의 신학이 더욱 심화 또는 시정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감춰진 여호와의 비밀이 드

러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 비밀은 주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 밝혀집니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비밀의 내용이 독단적인 어떤 편견이 아니라, 보편적(普遍的)인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보증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으나,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유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이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그것보다 한결 깊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욱 깊은 말씀을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긴자가 곧 ‘온 세상의 주’ 곧 하나님을 모시고 선 감람나무요, 예수의 두 증인입니다.(속4:14, 계11:3) 이긴자의 권능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것입니다.(계11:6) 이 권능은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으로,(출4:9, 왕상17:1 참조) 이 두 분은 두 감람나무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두 가지 권능이 육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에 와서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비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성령의 비’로서,(골2:28 참조) 이긴자, 곧 두 증인으로 하여금 이 ‘성령의 비’를 사람들에게 주고 안 주는 권

한을 갖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물을 피되게 한다’는 피도 역시 구약 시대의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오늘에 와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피되게 하는 경우를 좀 더 실감나게 육적으로 보여 준 것이 바로 ‘생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갓 성경 말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비로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은 거의 다 체험했을 터이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덴성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곳이라기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욱 잘 믿게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군병의 훈련소가 바로 이 에덴성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좀 안다고 하더라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 우습게 보거나 심지어 자기 나름의 속단을 하여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나 다윗은 우러러보았으나, 그들은 주님을 거의 다 목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단자로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주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다를 것 없습니다. 바울은 우러러보지

만 이긴자는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당시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자기가 모세보다 더 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고후3:7-9)

하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그 많은 교회를 이웃에 놔두고, 멀리 셋방살이하는 이곳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지자, 사도, 이긴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땅 위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왔으며, 또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자는 주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성경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선지자나 사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는 서열이 이긴자, 사도, 선지자의 순서로 달라집니다.

Chapter 17.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며, 또 그 때 문에 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예언들은 하나같이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은 물론이고, 주께서 땅에 직접 와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행적(行績)에 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앞으로 될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적인 인물로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성경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마지막 운명하실 때의 말씀까지도 당신에 관

해 미리 기록된 시편(시22:1)을 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거일동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합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요2:19)는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마26:32)는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 나타나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요14:16)는 말씀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주께서 부도(不渡)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즉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왕권(王權)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마16:28)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 당대는커녕, 장장 2천 년이 가깝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중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는 단서(但書)를 붙이기는 했으나, 부도는 부도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주님은 이런 부도를 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여러 교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잘못 기록됐나? 아무튼 재림에 관하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라.”(마24:34)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불찰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나중에 그

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상 중에 ‘이긴 자’가 나타나 당신이 다시 올 예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계11:3-4)

주님은 ‘그 날과 그때’의 광경에 대해서는 대충 윤곽은 말씀해주셨지만, 정확한 날짜는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날짜는 주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며, 어느 날 아무 시라고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는 땅에서 여건이 마련되어야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워져 십자가의 군대가 온전히 편성될 때, 그 날짜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땅의 움직임에 따라 그 날짜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지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군대의 수가 차면 주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게 되어 있고, 그 수가 차지 못하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마귀가 발등상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14만 4천의 하늘 군대가 다 편성되면 마귀의 세력을 발등상 시킬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께서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절차대로 천년 왕국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 봤자 악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내정(內定)하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정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확정짓는 것도 땅에서 그 수가 찬 연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짜는 땅에서 주의 피 권세로 그 수를 채우는 자, 곧 이긴자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3:12 참조)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마16:28)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말문이 막혔으나, 그렇다고 얼굴에 노골적으로 그런 기미를 나타낼 수 없어 마음속으로 은근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엿새 후에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가까운 제자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마17:1)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더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 우선 이들 앞에서 홀연히 변모하는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비몽사몽간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드리려고 합니다.”(마17:4)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홀연히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계신 주님과, 여기 결들여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초인적(超人的)인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17:5) 왜 하늘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삼스럽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주님의 주위에 모인 사람은 물론, 제자(수제자 베드로를 포

함해서)들까지도 주님이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일입니다. 그만큼 오래 때 묻은 우리의 고정관념(固定觀念) 또는 일반 통념(通念)을 바꾸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흐려 세상에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모세나 엘리야 정도의 대 선지자로 알았을 뿐, 이들 두 선지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머리에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대 선지자의 이미지(인상)는 깊이 박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부터가 무척 생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목수 노릇을 하던 사람을, 몇 가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남의 일로만 생각지 마십시오.

세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끝까지 따랐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운명하고 승천하신 연후에도 긴가민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이윽고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마17:9) 주님은 왜 이렇게 이들에게 함구령(緘口令)을

내렸을까요? 말로 하면 듣는 사람들이 곧이듣기는커녕 오히려 논란거리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육을 갖고 있는 인간 가운데는 선한 자가 있을 수 없고, 다 숯덩이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마19:18)고 말하여, 하나님만 선하시고 당신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선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암시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욘4:18)라고 하였겠습니까? 모처럼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신 인간을 외면하시면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불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의 인품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우러러보는 이른바 인류의 스승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기는 여느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흠 없는 인격자라야 주의 종이 된다면 엄밀히 따질 때 거룩한 단상에서 외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고 증거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도 맑아져서 선하게 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온전히 거듭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을 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를 베풀 때’(고후6:2)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만 보면 모처럼 일으킨 하나님의 큰 역사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도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있는 성령의 큰 역사에 압도되어 따르다가,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의심하는 사례가 없지 않는데, 이것은 물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데서 오는 본의 아닌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 못합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를 작살내는 마지막 작업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텐성회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여러분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18.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세상에서 못 사람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역시 죽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귀한 가치인 진, 선, 미(眞善美)와 같은 것도 요컨대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요긴한 구실을 담당하지만, 죽음에 삼킴을 당해 땅속에 묻혀 버리면 아무 가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고귀한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은 자에게 피카소의 그림이 무슨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무(無)’는 실로 만인의 최대 함정이자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진리와 덕과 아름다움은 살아남는다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남는 것은 추상적

인 생명으로 죽은 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無)’는 ‘무(無)’대로 거기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즉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증거를 대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11:1)라는 말씀 그대로, 신앙은 영생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확인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知性)을 능가하는 신비한 능력에서 오는 것으로, 이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해서 내세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영의 세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확신은 확신에 그치고, 그 세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감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물론 그들의 목자들도 모세나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자상한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6천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들어 쓰시는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 역사해 왔는데, 이것은 오늘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

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엡3:5)라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오늘날에는 이적이나 기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그 앞뒤 맥락으로 미루어 보아 전에는 바울 시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큰 은총을 베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3층천에 가서 하늘나라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영의 세계에 밝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평소에도 이상 중에 주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지만, 3층천에 가서 그 나라를 구석구석 목격하고 나서 더욱 그 세계에 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것처럼 세상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은 그가 남달리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빛’이니, ‘보석’이니 하는 낱말을 인용하여 단편적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세계는 바울이 이상 중에 3층천에 가서 목격한 것처럼 눈으로 보아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좀처럼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 땅덩이에 달라붙어 한동안 복작거리다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죄에 떨어지기 전의 아담, 하와 때만 해도 이들의 활동 무대는 우주요, 에덴동산이 거처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긴 오늘날 우주 시대에 접어들어 달나라에도 인간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마는, 타락 이전의 아담, 하와는 일종의 영체라 지구와 달 사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내왕했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나, 빛, 공기, 산, 꽃과 같은 그런 현세의 것들이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입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호화찬란하며, 천국 백성들은 물론 육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감각이나 감정 같은 것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즉 희로애락(喜怒哀樂)에 대한 감수성(感受性)이 매우 예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불 구렁텅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편의상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불 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지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데거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다 달려들어 몰매를 안겨도 마귀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때려눕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영은 육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도 10단,

당수 초특급이라도 안 됩니다. 영은 영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골2:28)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라고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마귀를 무찌르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자보다도 후자를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눅4:6)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그릇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얻으려니’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상 어렵도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찢절매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피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피 권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을 통하여 물 붓듯이 내리고 있습니다.(행2:17) 그것이 곧 여러분이 받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기로 ‘나’와 ‘세상’과 ‘악’을 이겨야 합니다.(계17:15)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이 같이하고, 패하면 마귀가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이긴다고 했습니

다.(요3:5)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긴자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마귀가 괴롭힐 수는 있지만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겼다, 졌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지시한 자기의 사명을 이루건 말건 이긴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건 말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건 말건 주의 길 예비자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성경적인 인물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영수가 밭든 곱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이상, 하루 24시간 내내 지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히 이 단에 서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계21:6-7) 이 말씀이 실제로 응해져야 합니다. 에덴성회는 양떼들에게 이 생명수를 먹여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일씩 단식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을 만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수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역사는 주께서 언약 가운데 하시는 일이며, 이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인물일수록 핍박이 심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눅9:58)고 한탄

하셨겠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육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크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마귀의 화살이 밤낮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겉돌기 쉬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눅18:8)는 주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今生)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전15:19)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에 먼저 참여하여 고생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그 나라에서는 물론, 이 세상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Chapter 19.

우리의 재산은 믿음이다



1) 주님 제일주의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짜증을 내거나 꿈무늬를 빼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건 곤란합니다. 믿음이 굳건하여지면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은 넓어서 기독교계에도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말과 행실이 탄판인 사람, 단상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훌륭한 인격자 같은데 뒤 돌아서는 교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기도 하고, 이권(利權)에 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산더미 같이 모여들면 뭇합니까? 거기서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양떼들과 같은 아름다운 심령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이나 돈, 혹은 몸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제일주의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즉 주의 이끄심이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주님’과 ‘나’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죽은 후에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많은 신도들, 아니 교역자들도 이에 대해 긴가민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덮어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에 의해 믿어야 합니다. 그 근거란 첫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에 의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인간의 총결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떤 그럴싸한 이유와 해석이 따르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곡해하는 인간의 소리입니다. “천국이라니, 네가 가 봤느냐?” 또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 있나?”에서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하는 무엄한 말도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말이 도무지 믿어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마귀 편에서 움직인 인간을 가려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은 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이 영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하나는 지성소요, 하나는 음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그 영이 음부에 들어가 대기하게 됩니다.(계 6:8) 그러나 순교자와 같은 자격을 얻어 멜기세덱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독실한 신도들은 지성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립니다.(계21:27)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하면서 수고한 클레멘드(Clement)를 비롯한 부녀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빌4:3) 그러나 음부에 갇힌 영들 중에도 심판을 거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계20:15)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컨대 천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마 22:1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눅18:8)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그들이 주의 일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열심히 섬기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까지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그 나라에 못 들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마7:22)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0년 가까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중공은 물론 온 세계를 향해 호령한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다스린 백성은 자그마치 8억, 세계 인구의 5분의 일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럼 모택동은 죽어서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는 현재 음부에 가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천하의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들어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2) 영적인 부유함

지금과 옛날과는 달리, 사상적으로 구석구석 파보리만큼 파보고, 과학 문명이 크게 발달하여 성경도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규명하는 한편, 달나라를 거쳐 별나라에도 내왕하는 이른바 ‘우주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 세계의 눈부신 발달과는 달리, 우리의 사고방식(思考方式)에는 구태의연한 일면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신앙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견해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당시에 모세나 엘리야 같은 대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심이 대단했지

만 주님은 거의 모두가 시골의 젊은 목수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만 막상 이긴자에 대해서는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등을 돌리고 삿대질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긴자를 내세워 크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7 참조) 그런데 주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사람도 거의 이긴자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등의 대 선지자들을 무척 우러러 보지만, 당대에 이들의 주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받들기도 했으나(갈4:14) 그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당대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마태, 누가와 같은 인물들은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욱 우습게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무 서원, 누가는 의사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에덴성회 식구들은 대체로 가난합니다. 주께서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종의 자기 합리화(自己 合理化)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풍성한 가운데 쉽사리 척척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당신

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지 못하고, 연단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 군병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본인의 주관적(主觀的)인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설사 육적으로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가난으로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흡족하게 생각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가난을 느끼지 않는데 가난이 있을 수 없고, 흡족하게 여기는데 부유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의 유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편 믿음이 있으면 육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요삼1:2) 그러므로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말라.”(마6:25)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굶어 죽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주님이 가짜거나 믿음 자체가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으로도 궁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까지 이르러야 엄밀히 말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일용할 양식도 얻고, 성전도 세우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성전 하나 짓더라도 주께서 참으로 당신의 몸으로 간주할진대, 없는 사람들끼리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우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못살게 들볶는 하나님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했을 때에는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백성들이 지나친 짐을 지고 허덕이는 폐단이 없도록 했으며,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했을 때에도 당시의 처지를 참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불에 해당되는 호화찬란한 건물이었으나, 이런 성전을 지을 마련은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이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떠맡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앞뒤를 두루 살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일에 힘과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갚아 주시거나 길을 열어 주십니다.(말3:10, 빌4:19 참조)

3) 질그릇 속의 보석

세상은 완악할 대로 완악하여 깊은 진리일수록 외면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6천 년을 통틀어 우리의 역사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예레미야의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늘의 도를 가르쳐 하나님께 인도한 백성의 수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 한동안 크게 활약했지만,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편 바울은 이만저만 고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지난 3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목숨을 유지해 나갈 수 없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와 권력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전도까지도 돈이 상당히 힘을 쓰는 세상입니다. 돈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보다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인격(덕)입니다.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도 인격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인격을 능가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평가할 때 인격이 척도가 됩니다. 즉 옳고 그른 모든 논란이 이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가치 척도가 ‘인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 집니다. 즉 모든 판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깊어지면 고결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자랑거리가 못됩니다.

우리 에덴성회는 죄 씻는 곳이지, 사람의 인격을 자랑하는 데

가 아닙니다. 훌륭한 인격자는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 이영수를 보고 여기 나오신다면 실망이 앞설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석을 연상하십시오. 그 보석이 가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소중한 것이지, 질그릇이 가치 있기 때문에 보석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Chapter 20.

오병이어



세상에서 성경만큼 오묘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묘할 정도가 아니라, 인류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백 번 죽어도 그런 책을 쓸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실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 쓰인 책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거기 ‘죽음’에서 벗어나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을 호소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성경은 아무나 읽어서 알 수 없는 성질의 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유식하다고 잘 알거나, 무식하다고 모르는 그

런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지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지들 중에는 유식한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과 성경 구절을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어두운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은 그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는 자의식(自意識)을 뚜렷이 갖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소화하지 못하는 대목은 주로 이적, 기사에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사람의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읽다가도 걸리고, 걸리니까 동댕이치기 쉬운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도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에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어떡할까요? 마을에 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면 되지 않느냐?”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약 5천 명쯤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이가 없어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딱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

는데요.”

“그걸 이리 가져오너라.”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이것을 받고 무리들에게 자리를 정돈하게 하시더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놓고 축복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일렀습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빙빙했으나, 좌우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 받은 사람은 그것이 손에 닿자마자 한 개가 두 개가 되어 자기 혼자 먹기에는 배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이웃 사람도 떡과 물고기를 받은 즉시 또 한 개가 두 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이웃에 나눠주고... 이리하여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는 모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문자 그대로 이적이므로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과학으로 흑백을 가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리(事理)를 분간할 때 언제나 이런 신비적, 또는 영적인 분야를 인정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보다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예를 엘리야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과부에게 축복하여 준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언제나 가득 차 있었던 이적 말입니다.(왕상 17:14-16)

주님은 그야말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든 거나 다름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귀 앞에서는 거부한 일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 보인 것입니다. 한편 마귀는 이것을 눈여겨보고 주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 일은 물론 마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 하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축복한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엉뚱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선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다는 속셈에서였습니다. 주님을 육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후에 주께서 “나는 산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1)는 영적인 말씀을 던지자 모두 떨어져 나간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번 밖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행하면 백성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들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이런 물질적인 혜택은 가장 낮은 차원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하실 일이 백성들에게 떡이나 물고기를 먹여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준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혜택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여

주객(主客)이 전도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무당식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주께서 맨 처음에 행한 이적은 물을 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술독에 부을 때에는 물이었으나, 뜰 때에는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을 때에는 물이지만 뜰 때에는 이미 생수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6-7) 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서 여러분은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생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생수로 시퍼렇게 멍들고 뺨뺨이 굳은 시체가 아름답게 노골노골 변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여러분은 이제 예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만성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Chapter 21.

인간을 보지 말라



인간은 극히 제한된 힘으로 한 세상을 살아야 하며, 생각이나 느낌, 말과 행실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을 보고 이 역사를 따랐다가는 결국 실망하기 쉽습니다. 아니 쉬울 정도가 아니라, 으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도 예배에 자주 빠지던데…”, “아무개 집사는 십일조 떼어먹어도 잘만 살더라.” 하는 식으로 따뜻미지근한 자기 믿음을 합리화(合理化)하는 것을 사람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못미덥다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자기를 남만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좀처럼 모르고 지나게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곧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느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저명한 인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일을 즐겁게 살려면 양복을 맞춰 입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말을 사고,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집을 장만하고, 일생을 즐겁게 살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것은 정직, 곧 인간의 덕을 강조한 것으로,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덕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즉 자기라는 인간 본위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이 덕은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덕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리를 판단할 때, 으레 ‘양심’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양심도 상당히 변덕이 심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양심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뜻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것에 그치는 양심에 의지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선과 악의 개념(概念)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또 악이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치 못하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본위로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또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눅7:25)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답답함이 담긴 논평의 한 토막입니다. 즉 “너희가 왜 인간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 섞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이영수를 보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 한 마디에 쓰러진 것이 어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행5:1-6 참조)

주의 종은 날이 갈수록 존재가 희미해지고 대신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이면, 그러니까 점점 주님이 희미해지고 내가 드러나면 이견 큰일입니다. 인간 이영수는 사라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기라성처럼 등장한 많은 선지자들의 인품을 보십시오. 성경은 여느 경전들과 달리 이들의 약점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학자(道學者)나 식자(識者)들의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이들이 모처럼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주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코 도덕적으로 숭배할 만한 인물이 못되며, 위대한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밖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약점과 결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컨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덕성(德性)이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덕성이 모자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인간은 다 죄의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있는 새까만 숫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씻기 위해 주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독실하다고 해서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세대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가장 적임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요,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단1:4)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혜로 눌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게 되자,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삼아 자기 기반을 닦고(단2:49) 총리로서 이들을 손발로 부려 치리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남달리 기력이 장사여서 블레셋 군을 쳐부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고, 주께서 박식하고 박력 있는 반역자 바울을 크게 들어 쓰신 것은 그가 이방인에게 새로운 하늘의 도를 전하는데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 세대의 특징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시

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까지 세상 모럴(도덕)을 앞세우는 데서 오는 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것은 떨어지는 장본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지만, 양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아무튼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들의 상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곧잘 말려드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가롯 유다가 떨어진 것도 요컨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나쁜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주의 역사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가롯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되고 싶어 하필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베드로도 한때 작은 가롯 유다였으니까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을 부인하였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미처 몰랐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언제나 자기반성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Chapter 22.

믿음과 행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한 구절에 얽매 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로 세월을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답시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목구멍에 거미줄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엄숙하고 순수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뭐니 뭐니 해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

리에게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주인이신 주께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성전세’를 지불한 이야기가 있는데,^(마17:24-27) 우리는 이런 데서도 주님의 융통성 있는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필요하게 남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어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례 폐지론’을 들고 나온 바울이 편 의상 디모데에게 할례를 몸소 실시한 것과도 맥이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행16:3)

또한 성경에는 서로 상반되는 뜻을 나타낸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강조하면 본의 아닌 오해를 하기에 꼭 알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엡2:8-10) 이 말씀은 구원관의 본질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행실이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택하면 얼마나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거의 다 타고난 성격과 주어진 환경 — 교육 수준, 생활 정도, 이해관계 등등 — 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보면, 설사 어떤 사람이 선택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自由意志)가 개입될 구석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구원을 얻게 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막말로 행위는 망나니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2:26) 그럼 이 말씀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믿음과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행위가 다듬어지고, 행위가 다듬어지면 믿음이 자라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자가 주님의 겹옷 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자가 당신의 옷자락을 덮석 잡는 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눅8:46)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의 겹옷만 만져도 이 병이 나를 텐데…’ 하고 그 기회를 잔뜩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가룩한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밟아 급기야 주님의 겹옷 자락을 잡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생면부지인 남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는 것은 실례의 정도가 아니라 망측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잊어버리고 이처럼 대담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즉 그 믿음에 그 행위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이런 극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앞설 때 다름 아닌 정한 그릇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부터 먼저 깨끗이 씻어 놓아야

합니다. 이 그릇을 닦는 작업이 곧 행위입니다. 주님은 “새 부대에 새 술을 붓는다.”(마9:17)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 부대와 새 술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에텐성회입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이룰테면 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기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행위는 믿음을 복돋아 주는 구실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일종의 주종 관계(主從關係)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에 의해 구원에 이르고,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가 생겨 응분의 보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서열도 이 공로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잠24:12)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게을리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과부의 엽전 한 닢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것에 의해 그 사람의 공로가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일을 뒤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들러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을 맞아 부엌에 나가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한가히 주님과 마주앉아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샘이 났다고 말하는 편이 더욱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언니를 거들 생각은 않고, 이야기에만 신이 나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리 좀 보내 주세요.”

주님에게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처지라면 당시에 주께서 얼마나 이들을 아껴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여러 군데 신경을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음식 대접을 하는 데 주력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이 역사의 뒷바라지에 힘쓰라는 뜻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는 일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 다 자기 분야에 100% 충성을 다했다면 물론 마리아의 공로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자기 일에 70%만 충실하고, 마르다가 100% 충실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더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구원이 믿음에서 시작되느냐, 행위에서 비롯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전자는 은혜를 앞세우고 후자는 도덕을 강조하지만, 어느 한쪽에만 역점(力點)을 둘 수는 없습니다. 양자는 긴밀한 함수 관계(函數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키(열쇠)는 역시 전자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마7:16)는 주님의 말씀대로, 덕스럽지 못한 좋은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좋은 믿음은 좋은 행위가 따르며, 그 행위는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Chapter 23.

생명의 불로초(不老草)



세상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상가니, 도학자니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진리의 근처를 빙빙 돌기만 할 뿐, 정작 진리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핵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짜낼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진리는 체득해야 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요14:6) 이렇게 말하면 또 이성(理性)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니?’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운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독단도 무엇도 아닌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올바른 우주관과 세계관, 역사관 나아가서는 사생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찾으려고 애쓴 불로초(不老草)는 예수가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진시황은 자기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부하를 시켜 오랜 시일에 걸쳐 막대한 돈을 뿌려가면서 이 ‘불로초’를 찾아내려고 무척 애썼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는 인간이 늙지 않고 무한정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육이 아니라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덩이 위에는 진시황이 찾은 그런 영약(靈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영적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당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믿음은 역시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귀한 ‘불로초’를 손에 넣기 위해 과연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마치 사과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사과가 떨어져 입속에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염치없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야 뭐 주께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시겠지, 혹은 이긴자가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고 주의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는 주체성(主體性)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가 타개해야 할 노예 근성과도 선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시 바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사59:1-2)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데 제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약이란 곧 우리의 ‘죄악’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악이란 무엇입니까?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제동(制動)을 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19:9)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굴 속에 피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결길로 갈 때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가 게으름을 피워 제단에 나오지 않고 대청마루에 선풍기를 틀어 놓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며, 박 아무개가 심방을 가지 않고 장 보러 갈 때, 하나님은 “박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 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간직할 만 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생명의 불로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선물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불로초는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값으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비싼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라고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다 묶어 바쳐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불로초를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에게 시간을 얼마나 바쳤습니까?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기면 여러분은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일조를 떼어먹은 일이 없습니까? 또 자기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데서 동냥 주듯 몇 푼 명색이나 유지하기 위해, 그것도 인색한 마음에서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동냥을 바랄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제일주의(第一主義)로 살아야 합니다. 즉 보고 듣

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사람의 신앙생활이며, 주 안에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자기 제일주의로 살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의 여러분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가 거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Chapter 24.

순종과 축복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얼마나 고심하시며,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또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의 세계에 눈이 어두운 인간을 사이에 놓고 성령과 악령이 서로 자기 소유를 만들기 위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옛날에 있었던 남의 일이 아니라, 인지가 발달된 오늘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민32:13)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내세워 애굽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일렀으나, 저들이 당신

의 계명 제1조를 어겨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그 죄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은 범죄하건 말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아무 채찍도 가하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책벌을 내리며, 그 시기는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결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11:15)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거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한 기도의 한 토막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으킨 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물론 자기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열광적으로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를 외쳤지만, 그때 뿐,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큰 불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임을 미처 몰랐으니 말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전혀 순종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손을 들어 적군을 물리치면 모세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랐지만, 얼마 지나면 다시 변덕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민14:22)고 탓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에게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치 않은’ 연고로,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편이 웬만하면 순종하고,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순종치 않는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버리십니다. 왜? 그런 뜻뜻미지근한 믿음으로는 마귀의 밥이 되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인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마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마귀는 성냥 한 개비로 아름다운 궁전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烈祖)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

아내지 아니하리로다.”(삿2:20-21) 이것은 사사 시대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보고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을 다 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부 남겨 둔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만 알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비하시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한정 자비하시지만, 불순종하면 그렇게 무자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신11:26)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양면 작전이라면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축복’이 아니면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 구약을 통하여 일관된 여호와와 기본 태도이며, 다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눈 밖에 나면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축복을 거두고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을 거두는 반면에, 당신의 백성이 눈에 들면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축복을 하고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육적으로 축복을 거두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축복을 거두면 육적으로 시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는 여호와께서 육적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

경위(經緯)를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적의 손에 붙여서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주위에 이방인들 — 애굽, 앗수르, 바사, 로마 등 — 로 하여금 위기를 조성케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저들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 정세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세가 긴박한 것은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力學關係)에서 빚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 등 뒤에 여호와 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25.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신다



1) 순종하라

내가 주의 지시에 따라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외쳐온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꾸준히 전하였으며, 주의 지시에 따라 성령을 부어 주는 은총을 베풀어 왔습니다. 때로는 이단이라는 욕을 먹고 도깨비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할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두세 번씩 버스를 갈아타면서까지 머나먼 이곳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그

무슨 동화 같은 소리냐고 말입니다. 하긴 영의 세계에는 동화와 같은 일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적당히 가감을 하여 일체의 신비(神秘)를 배격합니다. 그리하여 계시 운운하면 곧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폐단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행2:17-19)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에 이긴자를 내세워 성령의 큰 역사가 베풀어질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고했습니다.(계2:7) 그러므로 말세는 사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긴자가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할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과 성령으로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계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은 지식이 발달되어 달나라에도 내왕하는 때이므로 주의 종에 대한 지시 내용이 다를 뿐, 방법은 같습니다. 나는 이상 중에 받은 주님의 지시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으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장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것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그 기록에 의해 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이영수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밝을 수 있으며, 무슨 수로 그런 희한한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귀와 보는 안목도 상당히 달라졌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어떤 방법으로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도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입니다. 즉 여러분은 우선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이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을 씻어 세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산 증인이므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째 사명입니다.

이 역사는 하늘의 지시에 따라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합작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말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의 문제는 내게

말기고 따라만 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책임집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음란죄,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세 가지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 많고 행동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이 생명길인 줄 알만큼 안다면 묵묵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이 역사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거야’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호와와 ‘일곱 눈’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달리 착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 영의 목욕탕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나 받은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새삼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와서는 싱겁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역사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을 주님에게 중매하는 거간(居間)의 노릇을 할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내세워 당신의 아내감들을 물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후보자들이므로 흰 세마포로 예쁘게

단장하여 주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죄로 새까맣게 된 몸에는 입힐 수 없습니다. 입혀 봤자 쉬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죄의 때를 벗기 위해 공동 목욕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동 목욕탕이 말하자면 에덴성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배인 죄의 때는 주의 피로 씻게 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아내감을 일시에 물색하려면 최고급 비누로 몸에 배인 때를 깨끗이 씻어 주고 나서 세마포를 입혀 줘야 합니다. 이 비누가 곧 오늘 이곳에 내리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땅에서 주님이 당신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심부름꾼이 바로 '이긴자'입니다. 지금은 이긴자가 영의 목욕탕을 개업한 때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큰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이긴자이며, 무엇 때문에 내세운 이긴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이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을 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지가 오래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촛대는 벌써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옮겨진 것입니다.(마21:43) 그것은 우리의 이 역사를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직접 관여하는 역사의 율타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자 그 형제들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좃음이라. ...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 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겔33:30-33)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종(警鐘)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도 그때뿐, 곧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심지어 뒤에서 말썽이나 부리고 앉아 있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처럼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고’있다가 내 말이 그대로 응해지면 그때 가서야 ‘그분의 한 말이 옳았구나!’ 하고 후회할 겁니까?

나는 결코 허황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하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데 달린 것입니다. 지금 4, 5백 명이 앉아 예배를 보고 계시지만, 주님은 장차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당신과 함께 마귀와 싸울 만한 그릇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을 뿐, 그 밖의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은혜로 충만하

여 이슬이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변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할 탓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곱게 보이면 그만큼 은혜가 강하게 내릴 것이고, 밋게 보이면 또 그만큼 은혜줄이 메마르게 마련입니다. 하늘에서는 조급하거나 답답할 것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라도 백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슥7:12)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걸길로 가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역사에 동참한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 베풀어진 큰 성령의 역사가 육으로 기울어졌으므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3년 전에 처음 이 단에 섰을 때 나는 여호와와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귀한 피를 모독하여 짓밟아 버린 것에 크게 노하고 계셨으며, 그 노여움은 아직도 온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노를 온전히 풀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뜻하였나니, 너

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눅 8:15-17) 요컨대, 믿음의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화목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노여움을 더하게 됩니다.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막11:25) 믿음의 형제끼리 미워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대강령이고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헛수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끼리 무슨 원수가 된다고 티격태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상대가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에는 다 죄로 물든 새까만 숫덩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의 티만 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나없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사랑이 덮어놓고 상대방을 곱다 곱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이와는 정반대로 서릿발처럼 매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질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강탈하

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 교인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고전5:11-12)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그늘에서 독버섯이 자라는 것을 더러 목격합니다. 이른바 ‘쓴 뿌리’가 그것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쓴 뿌리’를 악신에게 내주는 권한도 보유하고, 정 눈에 거슬리면 이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고전5:5) 교인들과 고락을 같이 할 정도가 아니라, 자비량까지 하면서 낙은 먼저 교인에게 돌리고 괴로움은 스스로 사서 짊어져, 못 신도들이 주님처럼 받든(갈4:14) 바울에게도 이런 ‘쓴 뿌리’가 있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3) 주의 종을 도우라

여러분과 나는 같은 배에 탄 한 식구입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지루한 항해를 꾸준히 계속하던 끝에 드디어 미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발견하기에 이르기까지 그와 선원들 사이에 여러 차례 옥신각신이 있었으며, 심지어 저들은 하도 지쳐 콜럼버스를 해치려고까지 한 적이 있었지만, 콜럼버스의 용기와 끈기

로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일을 하려면 이렇게 어렵거늘, 하물며 마귀에게 도전하는 영의 싸움이야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날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 재산이자 내 자랑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사도 된 것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고전9:2)

“이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삼하24:3) 이것은 다윗 왕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려고 했을 때, 간한 총신 군대 장관 요압의 말입니다. 실로 가당한 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가 유덕(有德)한 다윗이니 망정이지, 만일 옹졸한 여느 임금 같으면 무엄하다고 해서 목을 베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임금에 그 신하라고 할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윗은 이 가혹한 신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여호와와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으며, 7만 명의 생주검이 생겼던 것입니다.(삼하24:15) 설사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자기가 기름을 부어 세운 다윗의 편을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본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가타부타 말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사29:16) 이것이 휴머니즘과는 다른 하늘의 가르침이 지닌바 특이한 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도덕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들거나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첩을 천 명씩이나 거느리는 것을 묵인했을까,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시대로 성전을 짓는 사명만 다하면 다른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덕스러우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한도 안에서 마음대로 행한 솔로몬의 행위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목동으로 있던 다윗과는 달리 어엿한 왕자였으므로, 그 정도의 축복을 하지 않으면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역대에 없는 부귀와 영화를 허용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 역시 육적으로도 받은 축복의 언약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원치 않으며, 또 그럴 처지도 못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어깨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에

게 밀려났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야 여호와
의 화가 풀렸던 것입니다.(수7:25)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Chapter 26.

믿음의 꽃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공경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가 몇 억인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마음이 아름답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피시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섭리 속에 들어온 백성들은 너나없이 날로 믿음이 무력무력 자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이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밖에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역사하실 필요도 없고, 주께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다시 오시지 못하고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척척 이루어질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할 만한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전한 것도 이 마귀의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치고 세상에서 환영받은 분이 있습니까? 세상을 마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와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선(死線)을 넘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구원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마16:24)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십자가의 군병밖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의 아내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감의 일정한 수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4, 5백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

나님은 언제나 이런 쓸모 있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의 머리수가 많다고 기뻐하고, 적다고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령 천 명 모인 가운데 30명 정도 쓸 만한 그릇이 있으면 그 정도의 영광을 받게 되고, 나머지 970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66권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도 하늘의 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의 귀에 솔깃한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우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말을 듣고 “아니 우리더러 성경 66권을 통달하란 말인가? 먹고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찢찢매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걸쳐 그 많은 장절(章節)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실로 그 열의와 끈기에 놀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앎’은 성경에 대한 이런 박식(博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정작 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야말로 나무를 보고 산을 보지 못하는 격이

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폐단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잘라서 말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신앙 목표를 뚜렷이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타기는 했는데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꺾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이 막막하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차지도 덤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미온주의(微溫主義)는 꺾대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향하는 바 믿음의 꺾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요컨대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꺾대가 서 있습니까? 이 꺾대가 든든히 서야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예, 독경(讀經)예, 전도예, 모임예, 십일조의 생활예, 형제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런 기본자세에 부실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당긴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말은 이런 움직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 같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씻어 주셔야지’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

는 게으른 사람을 외면합니다.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몇 갑절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19:29)

이때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장삿속으로 믿는 신앙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업고 세상에서 한몫 보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일조를 내도 주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낼 욕심부터 부리고, 감사 헌금을 바쳐도 타산이 앞섭니다. 그리하여 기대에 어긋나면 낙심하여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도 질적(質的)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 일률적으로 은혜가 많다 적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고전12:8-10) 이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끌어당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언제나 점검(點檢)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에 허점이 없는가? 무엇이 미흡한가? 어떤 점을 시정해야 하는가? 등등.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풋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Part 04.

좁은 문을 두드려라



27.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말라! · 28. 양과 염소 · 29. 주의 종은 고독하다 · 30. 계시록의 두 여인 · 31. 순교에 대하여 · 32. 은혜의 다림줄을 잡아라 · 33. 할례와 율법 · 34. 지상의 주님과 천상의 주님 · 35.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 36. 지구는 꿈틀거리고 있다 · 37. 은혜를 받으라 · 38. '에덴호'의 새 출범에 즈음하여

Chapter 27.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종을 통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와 또 회개 여부에 따라 내리는 축복과 책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저 탕아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 줄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돈을 탕진하고 거지꼴로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들의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하인으로 써 달라고까지 간청했으니 망정이지,^(눅15:20) 그렇지 않고 그냥 뻔뻔스럽게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려고 했다면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당장 내쫓았

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용서하고 복을 내리실 때에는 언제나 그럴 만한 조건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 시험에 합격하면 약속을 지키고, 합격하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을 수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도 믿음직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욥4:18) 마귀가 극성을 떨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역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저 기독교 사상 기라성 같은 모세, 다윗, 세례 요한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낼 것 없이, 이런 사례(事例)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단에서 외치면 은혜와 감동에 젖어서 금가락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가 얼마나 크게 도전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끝까지 너그럽게 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의 피를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문책하게 마련입니다.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 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당신의 종과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경우에는 불가불 종의 편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일단 모세의 편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모세를 끝까지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모세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행한 가장 큰 권능은 홍해를 가른 이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저 태양의 운행,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운행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주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했으나 저들은 그때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모세는 하나님께 고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저

들의 목을 축여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하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고하여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보살펴 주옵소서.”하고 고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強暴)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奸惡)을 보게 하시며, 패역(悖逆)을 보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합1:1-3) 하박국은 작은 선지자였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류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한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는 중단되고 맙니다. 하박국이 자기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2:2-3) 여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글씨를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에게 그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 조금히 서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당부하

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말을 반신반의하고, 뒤에 앉아 인간의 생각으로 왈가왈부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고, 남의 험담이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 하늘로부터 이렇다 할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자고로 ‘쓴 뿌리’가 으레 휘방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그 마수에 걸려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부터의 간섭이나 아래에서의 풍파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역사할 때의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교인에 대한 이야기이며, 다른 때에는 비교적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하여 크게 대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흡족한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긴 그들도 자기 나름으로 흡족한 은혜를 알고 예수 믿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민14:35)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이 자꾸 지연되다가 저들은 끝내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마귀가 인간의 육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그 행동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해봤자 “오냐, 여기 있다. 갖고 가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에덴성회는 여느 교회와는 달리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hapter 28.

양과 염소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깊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포함하여 듣는 사람들이 육에 사로잡혀 좀처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귀한 말씀을 던져줘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곡해한다면, 굳이 입을 열지 않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별로 깊은 말씀을 하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었습니다.(요14:26)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가르겠다는 마태복음 25장의 언약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좌우로 갈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마다 교회 문을 드나들 때에는 다 비슷한 신자이지만, 크게 구분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구분의 결과는 영적으로는 실로 하늘과 땅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또 한쪽은 영원한 불 구렁텅이로.

생전에는 고만고만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되니, 양쪽이 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이 주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쪽은 자기가 생전에 하나님께 별로 충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고 뜻밖의 일이라 이의를 제기하고, 또 한쪽은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한 벌을 받고 뜻밖의 일이라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양에 속하는 신도에게 “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쁘게 하였다.” 하시고, 또 염소에 속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이것은 다 나에게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25:35-참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일생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애는 애대로 썼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자기 나름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주종(主從)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

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을 공경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공경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이며, 결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동기부터가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사43:7) 마귀를 소탕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빌려 한몫 보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위로를 얻고, 마음이 평화로워 행복하게 잘 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이 부수적인 이득을 배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작은 소득이지 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졌다 안 졌다 하시겠습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이 돌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은커녕 오히려 형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위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 이것을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되려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모르느냐? 주님과와의 진정한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도 시대에는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스테반이 돌팔매를 맞으면서 기꺼이 죽어간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귀히 보십니다.(사116:15) 무릇 주께서 원하시는 일과 결부되지 않는 모든 움직임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그 열성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흉악범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을 대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답시고 끝까지 주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죽도록 하나님께 자기류(自己流)의 충성을 했겠지만, 그 말로(未

路)는 비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마당에서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존재입니다. 주의 섭리가 아닌 것은 마귀가 하루아침에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에덴동산도 침범할 수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서 믿어도 어려운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마4:8-9)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은혜를 웬만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라도 자칫하면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세 증거(불과 생수와 이슬)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긴자가 나타난 오늘에 와서는 한 증거(불) 정도의 성령을 받아 가지고는 맥을 쓰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열성은 여러분보다 몇 갑절 나으면 나왔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금 잘 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거기서는 주님의 새로운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 몸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

지 않았습니니다.(삼상13:9-14)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니다. 자기 본위의 열성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사업도 합니니다마는,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일일이 주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니다.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아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니다. 나는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 주었으며, 또 보여 주고 있습니니다.

Chapter 29.

주의 종은 고독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배격해야 하는 것은 안이한 신앙관, 다시 말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신앙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폐단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란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나 놀라운 은총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적수로서의 마귀의 능력과 농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정체는 성경을 상고하면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곡해하여 터무니없는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이런 폐단을 미리 막기 위해 일찌감치 ‘좁은 길’

을 가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마7:13) ‘믿는다’는 성경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계산에 넣고 생각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던 지하(地下)의 신도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었으니, 그 피로 죄가 다 씻겨 없어졌으며, 따라서 구원은 내 것이라고 마음을 턱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이며, 결코 앉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를 한사코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생전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요6:53)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구원관부터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아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는 평범한 세대에는 몇 사람 배출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단번에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과 일대 접전을 벌일 수 있는 십자군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일종의 편파적인 선민의식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한 심부름꾼으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달

고 오묘하여 육을 먹으면서도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의 하나님의 종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움직임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활자화(活字化)된 세 권의 설교집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자상히 가르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에 매인 몸이라, 내가 한껏 영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려도 얼른 실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바울 때에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거의가 일찍이 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연고로 ‘듣는 귀’가 있어 어느 정도 내 말이 수궁이 가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별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경우처럼 비유로 귀땀이나 하다가 외톨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기가 주의 종치고 외톨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가는 길이 남달리 고독한 것은 말은 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음으로 양으로 주님과 사귀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감각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실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활동 무대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때로 신기한 이적을 베풀어 당신의 살아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알게 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흔히 무슨 동화와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것 제쳐놓고 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코 일조일석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줄을 잡았다가는 놓치고, 놓쳤다가는 다시 잡고 하는 긴 연단 속에서 비로소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일종의 전쟁으로, 오늘날 영적인 세 단계(불, 생수, 이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은혜가 끊이지 않고, 언제나 줄곧 연결되기까지는 실로 저 백마고지(白馬高地)를 뺏고 빼앗기는 혈전(血戰)을 방불케 하는 무수한 고난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끊이지 않기까지 사생결단을 내리는 심정으로, 때로는 얼굴을 땅바닥에 비벼 대면서 주님께 울부짖고, 때로는 소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과 은혜가 정비례한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나는 다만 믿음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려면 응분의 노력과 매달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 에텐성회에는 마귀가

유난히 극성을 떨고 있으므로 누가 언제 사로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많은 주의 종들은 각자 맡은 사명이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든다면, 마루를 놓는 종, 지붕을 이는 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의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하더라도 이 단상을 통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 이영수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현재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들도 우리의 이 역사가 열매를 잘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히11:13) 여기 ‘이 사람들’이란 역대의 수 많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푸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당하여 영광스러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약속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이 역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성(히11:16)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때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을 아름답게 짓는 것

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씩 일꾼을 불러들이는 때이며, 불원에 알곡을 거둬 성을 완성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곡으로 서서히 여물어 가야 합니다.

Chapter 30.

계시록의 두 여인



계시록의 골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세상에 내놓은 계시록 강해에 대충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오늘은 거기 나오는 두 여인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여인은 태양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며,[\(계12:1\)](#) 또 한 여인은 붉은 자줏빛 옷을 걸치고 있어,[\(계17:4\)](#) 외모로도 짐작이 가듯이 피차에 큰 적수(敵手)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붉은 자줏빛 옷을 걸친 여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로 규정하고, 그녀가 탄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이 가득 쓰여 있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녀는 “자주와 붉은빛 옷을 입었으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

님과 마귀가 인간의 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신약 시대에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主武器)라고 하겠습니다.

이 음녀는 두 번째 전쟁 때 맹활약을 하여,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임금’이나 ‘방백’으로 대표되는 모든 권세가나 위정자(爲政者), 재벌을 위시하여 남녀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물이 어디나 스며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퍼져,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계17:5)

이 음녀가 탄 짐승에게 ‘참람된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는데, 이 이름은 마귀의 편에서 움직여 이마에 찍힌 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군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계14:1)

그런데 이 음녀가 탄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가 이미 펴낸 계시록 강해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큰 권세를 상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최대의 발악을 하는 것이 이 음녀, 곧 음란 마귀입니다.

‘일곱 머리’의 머리는 아까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세를 상징하는데,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권세가 완전해 가까울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눈여겨보시면 알 테지만, 이 완전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곱 교회, 일곱 우레,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천사, 등등. 그런데 짐승의 일곱 머

리는 가운데 한 머리가 있고 여섯 머리가 이것을 에워싸고 있는데, 가운데 머리에 뿔이 넷, 나머지 여섯 머리에는 각각 하나씩 달려 도합 열 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13:1) 이런 엄청난 권세는 마귀의 괴수 용(龍)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계13:4)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계12:3-4) 용대가리에 달린 면류관은 바로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용이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만큼 공중에서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참으로 호화찬란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녀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짝짓는 것이 두려운 소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음녀를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음녀가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계17:6) 즉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음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이 음녀를 쓰러뜨릴 만한 그릇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음녀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주께서 다시 오실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이 음녀가 소탕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

오라.’ 하셨도다.”(시110:1)고 했고, 베드로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3:21)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이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실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하고 암만 떠들어 봐야 그것만으로는 하늘에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신경 쓰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음녀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의(義)의 세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음녀를 무찌를 수 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질수록 음녀는 맥을 못 씹니다. 즉 악의 세력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의 세력이 꺾여 원수가 발등상 될 기틀이 마련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금방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한 차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3차 전쟁으로, 이때는 싸움의 양상이 이전과 달라집니다. 영과 영, 곧 성령과 악령의 일대 접전이 전개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계12:5-7) 여기 말하는 이 여자는 음녀의 적수인 ‘해를 입

은 여자', 곧 태양처럼 빛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와 '아들'에 대해서도 계시록 강해에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재림주를 가리키며, 재림주가 탄생하려면 주의 일정한 아내의 수(14만 4천)가 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내의 수가 차야 재림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의 아내의 수를 채워 재림주를 탄생시키게(낳게) 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비밀문서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 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 이외에 가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재앙을 내리겠다.”(계22:18-19)고 경고하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인용한 본문 말씀은 음녀의 세력이 꺾이고, 주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세력은 일단 꺾였으나, 아직도 무저갱 속에 가둬 둔 마귀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까지도 사그리 쓸어버리기 위해 천 년이 차면 무저갱의 마귀를 다 놓아줍니다.(계20:7) 이때 무저갱으로부터는 음녀보다도 더 강력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때 천군(주의 아내) 이외의 영들은 다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음부에 가둬 두는 것입니다.(계13:8) 곧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 기간이 그것입니다. 이때 두 증인(감람나무)이 한동안 희생되고,(계11:7) 어린 양의 아내

들은 ‘광야’로 피하며,(계12:6)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계시게 됩니다.(계12:5) 군사 용어로 말하면 ‘작전상 후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기간이 지나면 주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계 19:13) 미가엘 천사장(계12:7)과 함께 14만 4천의 천군을 거느리고 용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합니다. 이것이 곧 영과 영의 싸움인 ‘아 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계16:16)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 심판이 벌어지며,(계20:12)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계21:1) 이렇게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마귀의 훼방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떨어졌을 때부터 노골화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뱀(마귀)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창3:15) 이 말씀 그대로 마귀는 실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앙숙이 되어 왔지만, 드디어 주의 철장에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장은 재림주의 것으로, 영적 12지파가 형성되어야 주님께 주어지며, 하늘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왕 노릇하실 때까지 주께서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늘군병인 14만 4천이 편성될 때 비로소 재림주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계14:1)

이 수가 차지 못하면 음녀를 소탕시킬 철장을 가진 주가 나타나지 못하며, 따라서 주님은 마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제바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만전하 못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필 일부 몇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했겠습니까?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소견이 좁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아브라함),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삭), 그리고 예수님의 피 권세로 역사하는 감람나무 이긴자(야곱)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밖의 모든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 이외에는 거들떠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신에게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고 그 아들 이삭을 거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여 당신의 선민으로 삼고, 이들 가운데서 천군의 재물을 골랐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려 보내어 그 피로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육적 12지파는 초림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게 되

었습니다. 즉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선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개막된 신약 시대도 주의 재림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 3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내가 늘 말하는 영과 영끼리 싸우는 제3차 전쟁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즉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때부터입니다.(계7:4 참조)

이 제 3단계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새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바울의 신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제 3단계의 여러 가지 내막에 대하여는 어떤 교역자나 신학자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계시록의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단12:9, 계2:17 참조)

Chapter 31.

순교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피비린내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을 사자(獅子)의 밥이 되게 한 유명한 네로 황제의 대학살에서 우리나라 6.25때 교역자들에 대한 붉은 마수(魔手)의 무더기 처형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 공산 치하에서는 지하에서 몰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지내는 많은 신도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근 2천 년 동안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는 수백만에 이르는데, 이들을 다 순교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순교자라면 주께서 재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14만 4천의 천군은 진작 차고 넘쳐 천년왕국이 벌써 이루어지고,

이어서 새 하늘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순교자를 가리켜 ‘주를 위해 목 베임을 받은 자’(계20:4)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주를 위한 겉사람의 형식적인 죽음이 아니라 속사람의 진실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런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세대에 몇 사람이 날까말까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주를 위해 태연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 권력, 재산, 이 모든 것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를 앙모하는 마음이 여간 뜨겁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되며 결코 인간의 용기나 결심 같은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대체로 한동안 같이할 뿐,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교하려는 각오는 되어 있어도 죽음을 눈앞에 놓고 애착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그 죽음은 거룩한 순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교란 성령의 감화도 감화지만, 긴 시일을 두고 미리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비란 심한 연단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와 열의가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히 달리다가도 맥이 빠지거나 풀이 죽는 것은 은혜가 줄곧 같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했거나 희미하게 받은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자기 안에 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를 자기 안에 모시려면 주께서 좌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주의 것이 되지 못하여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뽀뽀이 살아 있는 한 주님은 언제까지나 대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랑거리가 없어져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자기’가 사라져 비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들어와 계실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의 인격을 소유할 때 두려운 것이 무엇이며, 부러운 것이 어

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죽이고 주의 피로 속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먼저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면서 ‘나’를 앞세우는 것은 아직 주님을 속에 모시지 못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성령이 떠난 곳에는 대신 마귀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나 중심의 생활에서 주님 중심의 생활로’—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과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실히 잡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비로소 순교, 즉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2.

은혜의 다림줄을 잡아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殿)의 지대(地臺)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슥4:9-10)

스룹바벨은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매여 있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유대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짓기 위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내리는 은혜의 줄기를 가리킵니다. 이 줄기는 어둠 속의 한 가닥 햇빛과 같이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저마다 맡은 사명은 다르지만, 모두가 은혜의

다림줄에 의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부름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실제로는 이처럼 언제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요? 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건설이 그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고, 주님도 보내고, 감람나무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는 전법(戰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종의 전쟁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일찍이 창세 당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까짓 마귀를 처치하지 못하여 그렇게 오래 질질 끈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으로 달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암스트롱은 하늘에서 공처럼 떠 있는 지구를 보고 인생의 보잘것없음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이나 지구는 광대무변한 천체에 비하면 실로 좁쌀만한 존재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천체는 과학의 힘을 빌려 점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불수레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과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하고 다그쳐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고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이 주관적인 지식에 의해 자라고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귀가 에덴동산에 침투해 들어간 후로 세상이 마귀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시록 강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마귀는 7:6의 비등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를 위대하게 봅니다. 그럼 마귀는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사람들은 중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중립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편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의 인간은 맨 처음에 지은 당시와는 판이합니다. 즉 인간은 육을 입은 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될까요? 우리는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알아들으려면 한국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까지 도달하려면 그 속도가 햇빛처럼 빨라도 몇 억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야 7, 8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살아 있을 동안은 물론 손자 증손자 대에 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로 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즉 하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려면 이 장막을 뚫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장막을 지나서 인간과 접촉하고, 인간도 이 장막을 지나야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해서 뚫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의 다림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줄을 타면 마귀의 훼방을 받지 않고 곧장 하늘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날개를 타고 땅에서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마귀로부터 내려오는 악령의 날개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마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제사와 마귀가 받는 제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 나와 하나님은 일대일로 교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말세에 이긴자를 세운다는 언약을 했겠습니까?(계 2:17) 일대일의 교류는 이긴자가 나타나기 이전의 일이며, 그나마 주님과 영적인 접촉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장막을 거쳐서 지상의 인간과 교류하지만,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마귀는 직접 쉽사리 인간과 교류합니다. 산에 가서 선불리 도를 닦다가 마귀의 신을 받고도 그런 줄 모르고 좋아하는 사례(事例)가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기보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다림줄은 마귀에게 직접 침노를 당하지는 않지만, 허점(虛點)을 보였을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통로(줄기)를 통하여 달갑지 않은 것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불가불 이 길을 막아 버리고 딴 길을 터야 합니다. 즉 종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땅에서는 그런 줄 모르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다림줄이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14만 4천이 여태 차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그 제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의 소유자들이라면 하늘에서는 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겨우 열 명 정도의 제사나 하늘에 상달되는 곳보다 더욱 관심 깊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전무후무한 은총은 괜히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아닙니다.

Chapter 33.

할례와 율법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요긴한 것은 은혜의 큰 줄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체계’(體系)라고 합니다. 성경의 장절(章節)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지만 그 대맥(大脈)을 헛짚고 있다면 아직 체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할례와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세레 요한 때까지 2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창17:9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되고, 이 12지파가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는 당신의 경륜을 펴나

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만,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마귀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하여 피의 언약을 맺고, (창 17:10)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백 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4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약속하여, (창15:13-16)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즉 대선지자 모세를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개화된 이집트의 문물에 접하게 하는 동시에, 이방의 고된 생활을 통하여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민족의 전통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부터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폐지하신 분은 실은 주님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미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폐지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할례가 율법에 흡수되어 있었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천 년 기나긴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손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자주 율법을 치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것(자유율법)을 들고 오셨으니 낡은 것(모세율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두고 자유의 율법을 선포하는 날이면 속된 말로 비빔밥이 되어 혼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환영을 받을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주의자들의 안목으로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니,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너무 요란하면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러 왔다.”(마5:17)고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하긴 자유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온전한 것이니, 주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배후에는 그런 쓰라린 사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16:16)

여러분은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딱하게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매어 있으며, 세상에 매어 있는 한 영의 것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는 절도요, 강도니...”(요10:8) 이것도 주께서 율법을 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때 여러분도 옆에서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주께서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구나! 왜 구태여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언사를 쓰실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생전에 겨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강력히 증거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제자들 중에서 맨 먼저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맡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12) 그래서 주님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할례 폐지론’ 같은 것도 생전에는 변죽만 울리고 나중에 바울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활약할 무렵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으므로 말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정만 허락했던들 이것은 주께서 직접 하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보다 더 큰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요14:12)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가 적으면 맥을 못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수가 많

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120문도는 주님이 전도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한 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 성령을 내려 주신 것은 요컨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널리 전파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법도 아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불과 생수와 이슬 같은 세 증거의 성령은 단지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만일 사도 시대처럼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날 내리는 성령의 은사도 불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성령의 은혜는 그보다 몇 배 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받아 보았으므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나? 이에 대해 나는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컨대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Chapter 34.

지상의 주님과 천상의 주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시리라.” (요16:7-8)

이것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찍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우주의 창엽에 동참하셨지만(창1:26) 이 땅에는 육을 가지고 불가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히2:9)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장기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렸으며, 사람들은 자기네와 같은 인간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는 흠과 티가 없는 성결한 분이였으나, (요8:46, 고후 5:21, 히9:14) 잠시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와 같은 새까만 죄 덩어리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죄인의 위치에 서

지 않으면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대속이란 누가 죄를 지어 곤장 열 대 맞을 것을 죄 없는 자가 대신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에게 곤장 한 대라도 맞아야 할 죄가 있다면 인간의 죄는 곤장 아홉 대 분만 탕감이 되고, 한 대에 해당되는 죄는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죄가 많을수록 대속의 제물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갈3:13) 되신 것입니다.

그는 육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품에 계실 때와는 달리 마귀의 제재를 받습니다.(마4:1)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다음가는 위치에 계시지만,(행7:55)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 계실 동안 그의 행동거지(行動舉止)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 예언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가령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병을 고치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등등의 행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에게 마냥 자유를 주면 육의 제약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언동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

니,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하에 들어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시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26:39) 하고 간구하고,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이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먼저 기도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가까운 언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보다도 땅에 더 가깝게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 물론 잘 알고 계셨지만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비유로 암시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큼 지상에서의 행동에 구속을 받은 분도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처지였다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본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님의 피 권세로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없던 엄청난 권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9)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 당시에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들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굳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령으로 하여금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계실 때에는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여, 세상을 책망하기에는 시기가 일렀던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요컨대 세상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20:23) 이 말씀 역시 성령의 정죄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12:32)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성령을 거슬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행5:9)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16:12-14)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주께서 땅에 계실 때 미처 못 하신 말씀을 보완하여 보다 더 충실을 기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신학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보다 더 깊은 말씀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바울 안에 거하는 성령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세대에, 그리고 같은 고장에 태어나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들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마13:17)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대가 오하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 생존 시의 베드로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믿음과 행동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 35.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직접 간접으로 교류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과 같은 종들과, 신약 시대의 바울, 베드로와 같은 사도나, 이른바 마지막 때의 이긴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심부름꾼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사람과 다를 것 없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 비중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인덕이 높은 성인군자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덕(知德)에 있어서는 별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남달리 용맹하여 외적을 단칼에 무찌르는 영웅이나 호걸도 못되며, 변설에 뛰어나 말 한 마디로 남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웅변가도 아닙니

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슬피 울었으며,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끼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하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격해지자 이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망령된 말을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민20:12)

그리고 다윗으로 말하면, 영의 세계에 제일 깊이 들어가 주님에 관해 신령한 예언을 많이 했지만, 그 소행은 결코 아름답기만 하지 않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으며,(삼하11:21)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지시한 불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형벌을 백성들에게 돌려 7만 명의 희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삼하2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왕상9:4) 하나님께서는 아비 다윗에게 허락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전고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모범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너그러우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죄로 당신의 사람의 믿음을 척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처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당신의 사람에게 베푸는 일종의 특혜로, 그에게는 일반 신도의 법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응분의 벌을 내리기는 했으나,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다면 돌로 쳐 죽였을 그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며,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훨씬 벗어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에 부름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는 인력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숙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인간적인 약점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의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며, 야고보와 요한

은 허영이 많아 어머니를 통해 감투 운동을 했습니다.(마20:21)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치켜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약점까지도 정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 기자의 성실성에 탄복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하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하여 마지않는 성인 군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못마땅한 것입니다.(눅16:15)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범죄한 아담, 하와 이후의 인간은 한결 같이 영적인 불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赤裸裸)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참된 인간상(人間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신약 시대에는 문호를 개방하여 범세계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을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내세워 그를 통해 부분적으로 역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사55:6)고 가르쳤습니다.

신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는 범위가 넓어졌을 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밖에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하늘의 군대를 편성하여 하늘 나라를 이룩하자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36.

지구는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응해지는 것으로, 식자(識者)들이 한결같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아직 이에 대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 분명히 모르고 있는 이유는 영의 세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 첫째 인을 떨 때부터 일곱째 인을 떨 때까지,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때까지, 그리고 첫째 대접을 쏟을 때부터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계시록 강해에서 이에 대해 대충 설명해 놓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쳐다보는 밤하늘에는 약 10

만개의 은하계에 3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많은 별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덩이의 몇 백 분의 일도 될까 말까 한 한국, 그것도 반쪽으로 갈라진 남쪽의 이곳 서울 한 모퉁이 어떤 빌딩의 6층 꼭대기에 하나님 의 정기(精氣)가 깃들어, 특별한 은총 아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그 울타리 속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어안이 병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하시는 역사라고! 생명을 위협하는 교권(敎權)앞에서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증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진통의 하나로 ‘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지진은 물론 오늘에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지만, 이 세기에 접어들어 범세계적으로 자주 횡포를 부리다가, 여러분이 지상(紙上)을 보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래에 와서 부쩍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공을 강타하고, 터키를 뒤흔드는가 하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그 기미가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핵폭탄을 만들어 지하에 저장하고 있는데, 언제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 제바람에 폭발할지 모를 처지에 있습니다. 핵물리학자들

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만으로도 세계를 일곱 번이나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원자폭탄은 이에 비하면 아이들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로 무시무시한 땅덩이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손들이 이 지구에서 대대손손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도 인간의 고정관념(固定觀念)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핵무기를 만든 것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이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구에서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구가 어디 인간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임자가 자기 것을 다시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들끓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 멸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한 가족만 건졌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부패하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가 아닌 오늘날 일어날 재앙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금년은 12월 달이 유난히 따뜻하여 옷장수들까지도 장사가 되지 않아 야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상대에서는 12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나는 당시에는 그것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에는 내 말을 ‘설마’하고 들은 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12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날

씨는 계속해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의 기상 과학은 크게 발달되어 앞날의 날씨를 거의 정확하게 맞춰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긋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긴박한 처지에서 짓고 있는 성전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추위가 몰아칠 것입니다.

Chapter 37.

은혜를 받으라



‘은혜’라는 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주일을 맞아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데 누구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거나, 남들이 성경을 하나의 신화나 전설 또는 고전 문학을 읽는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큰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느 사람들은 쭉스러워 차마 못 부르는 주님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남들이 횡설수설로 여기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대하여 엄숙한 한때를 갖는다면, 이것 역시 예삿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여 이런 넓은 의미의 은혜만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키워 나가기에 어쩐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령, 주께서 살아서 나를 가까이한다거나, 자기가 죽으면 구

원을 얻게 된다는 좀 더 분명한 증거를 얻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즉 은혜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테 이런 갈증은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령의 불을 받든가, 향취를 맡든가, 또는 생수나 이슬의 은혜를 접하든가, 혹은 이 모든 것들 다 체험할 때 비로소 주께서 자기와 같이한다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받아 은혜의 기갈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가까이 하실진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죽어도 죽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다 더 굳건히 다지기 위해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좁은 의미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의 장난이냐를 가려야 합니다. 이걸 어려워 할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덕스럽지만, 마귀에게서 오는 악령의 역사는 불순하고 비천하고 부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가령 하나님과 교류한답시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자빠져서 거품을 흘린다면 우리는 이런 신비의 체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안찰을 해 보는 것입니다. 즉 내 손이 닿자마자 상대방의 악의 세력이 대항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강하게 내립니다. 장소부터가 주님의 몸 된 성전이요,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 십자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박수를 한 번 쳐도 정성껏 쳐야 합니다. 또 찬송을 한 마디 불러도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이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은 얕체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 마음이 복잡하면 주의력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없으며, 생각이 곁길에 접어들어 은혜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른바 지식인들이 은혜 체험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이들은 흔히 이론을 앞세워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갈6:14\)](#)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의 것이 조금이라도 앞서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란 인간의 혼에 주님의 영이 담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언제나 영적인 교류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구태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줄을 잡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오래 간직해

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마귀에게 내주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끊긴 것은 마귀가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긴자란 바로 은혜가 끊이지 않고 늘 연결되어 있는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가 있는 곳이 제단이 되며, 그 단상에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애쓸 때보다 은혜 받기가 무척 쉽습니다. 귀한 섭리 속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섬하게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언제나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 보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반드시 먹물이 묻었거나 두드러기가 돋았거나, 어떤 흠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은 1년 365일 신앙생활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변동이 없이 일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은혜는 노력의 대가일 수 없지만, 노력 없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비하면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게으른 사람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도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그것을 분명히 느낀 것처럼, 오늘날 예언된 인물을 통하여 내리는 이슬 같은, 혹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도 감각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께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누구나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이런 은혜의 연결을 받지 못하고 맨송맨송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딘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쩐이뇨?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사50:2)고 우리에게 안타깝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거기 호응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도 여러분의 그릇이 정하지 못하면 담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천국을 빼앗기 위해(마11:12)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약된 종을 내세워 은혜를 부어주는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므로 혜택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교회에 나오

기만 하면 이 손길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저 되는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노력 없이 받은 은혜는 쏟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적어도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기가 바쁘게 쏟아 버리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로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은혜를 한번 쏟으면 마귀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마12:45)

여러분은 방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제단에 연보를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 모든 정성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찬송을 불러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송이나 기도는 백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저분한 생각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 간구하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사오리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또 잡생각이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두 달, 석 달 꾸준히 노력하노라면 반드시 은혜의 연결을 받게 됩니다. 나부터

먼저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제단에는 30분쯤 미리 나와 준비 기도를 하고, 좀 극성을 부리십시오. 사생결단을 하고 매달리십시오! “저에게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주셔야 살겠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뿌려 호소할 때,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열성을 내면 물론 마귀가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뜻하지 않는 시험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병마로, 손재(損財)로, 혹은 터무니없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값진 것일수록 손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배인 은혜를 거저 받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오늘날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늘에서 무작정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슥4:6)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할 대로 다 시험하고, 저울에 달아보고, 자로 재어보신 후에 비로소 당신의 종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남모르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남 못지않게 매달렸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눈물 뿌려 주를 사모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주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에 단을 지킬 때 세 사람을 놓고 설교하면서도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고, 교역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10원 한 장 축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고치십시오. 집안에서 할 일은 하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육과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이란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억만장자로, 미국 대통령의 미망인도 아내로 삼고 한동안 흥청거렸으나, 그가 죽은 뒤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족들에게 재산 싸움을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자기 맘대로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행자지(自行自止)’라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다니십시오. 주와 멀어지면 욕심이 생기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즉 주를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롬14:23) 하나님은 형벌이나 축복을 당장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응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를 멀리하고 ‘내’가 고개를 들 때 교만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주께서 이상 중에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보다 숨어서 주께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욱 앞서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 자리에 몇 명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

니라, 몇 명이나 주 앞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알곡을 채우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바 내 사명입니다. 나는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신앙 생활을 알차게 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hapter 38.

‘에덴호’의 새 출범에 즈음하여

- 첫 성전을 마련하고 -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셋방살이를 하면서 전전해 오다가, 이곳 용두동(龍頭洞) 마루턱, 유서 깊은 사범대학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께서는 이런 불우한 처지에도 우리와 같이하시면서 그때그때 어려운 고비를 무난히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자리만 하더라도 구입하는데 어려운 조건이 많았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아담한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찾기도 쉬운, 그야말로 명당자리입니다.

성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무작정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큰 역사를 이루도록 땅에서 소금의 직분을 다하려는 뜨거운 사명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분주히 뛰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서 저축을 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그때그때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됩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5일이었습니다. 업무를 코앞에 두고 연건평 200형의 큰 건물을 지으려고 착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을 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날씨까지 조종하여 공사를 무난히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의 기상 예보대로 12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렸더라면 일은 일대로 낭패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의 날씨는 우리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는 25일까지 계속 따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사를 담당한 분들은 날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중까지 일해 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강행군을 했는데도 별로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더욱 샘솟듯 하는 가운데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일해

온 것은 주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뒤에는 언제나 인치는 천사와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 및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위해 일선에서 땀 흘린 일꾼들은 물론, 뒤에서 헌금하시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 기도해 주신 분, 그밖에 여러 모로 걱정해 주신 분들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맺은 하나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나없이 힘에 겨운 짐을 지고 당분간 상당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히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은 은혜 가운데 견디고 또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에 반드시 보답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미리 지나치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장삿속처럼 되어 버릴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거운 십자가를 졌을 때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 성전의 단상을 통하여 내리는 은혜도 한결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보상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그런 함수(函數)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내리고, 거역하면 재앙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본 방침은 성령

으로 다스리는 오늘에 와서도 원칙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나 개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에는 반드시 응분의 은총을 받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는 조만간 축복이 끊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 성전 건축에도 한 덩어리로 뭉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분별하는 지각을 주시고 소임을 다하려는 감동(분발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귀한 복음을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마귀와 싸울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43:18-21)

1976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돌아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볼 것도 없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멈추면 죽고 전진하면 삽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딛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야 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백 배 더 큰 성전을 짓더라도 이 첫 성전을 지을 때의 뜨거운 성원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집이 소중한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내 집은 잘 꾸미고 성전은 영성하게 꾸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아름답고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새해 77년은 전도의 해입니다.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고, 죽어 가던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시하여 짓게 한 성전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비록 호화찬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맑은 소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이 단상을 통해 터져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심령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